

Vol. 204

신한대학교 소식지



Shinhan University  
Newsletter

2024  
06



신한  
대  
학  
대  
소  
식  
지

S  
H  
I  
N  
H  
A  
N

- 신한대학교 취창업팀, ‘현직자 멘토링’
- 신한대학교 입시 경쟁률(since 2014~) 최고 기록 中
- 취업률도 경인지역 2위 ‘쾌거’
- 만화로 그려낸 도서관 세계, 중앙도서관 카툰 공모전 개최
- 사립 명문 종합대학 ‘신한대학교’, 휴게시설 확충. ‘명품 대학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
- 대학서의 마침표. 미래로의 첫 걸음,

- 신한대학교, 세계평화를 꿈꾸며
- [다시, 푸르게 RE] MOVE 신한대축제
- 학과 별 특색을 내비치다! 신한대 학술제
- 교육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한대 마이크로디그리 전공 박람회
- 리뉴얼된 신한대학교 시설물

대담한 기자들 - ‘패논패 / 절대평가’ / Culture 서평 / 이모저모



표지제호와 함께 표기된 위의 패턴은 점자로 '독특'을 표현한 것입니다.

## COVER STORY

신한대-몽골 생태생명공학연구센터 개소 등 글로벌 대학과의 MOU를 실현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Globalization을 G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 발행인 총장 강성중 • 발행처 신한대학교 신문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 Tel. 031 870 3266
- 발행일 2024.06.11 • 편집주간 변희진 교수 • 편집자문 이종탁 교수 • 디자인자문 김기순 교수 • 편집장 김민성 기자 / 이민주 기자
- 디자인 기획 신한대학교 홍보팀 • Tel.031 870 3406 • 정가 8,000원

# 50

1972 - 2023

## Contents

- 01\_US.KOREA.SOL.1010.599.GX
- 02\_이념과 비전
- 04\_편집장 논설
- 06\_DMZ추수감사제
- 08\_신한대학교 입시 경쟁률(since 2014~)
- 10\_신한대학교 취업률
- 12\_마이크로디그리 박람회
- 14\_신한대학교 축제
- 20\_신한대학교 학술제
- 22\_도서관프로그램(재콘 북토크 등)
- 24\_중앙도서관 카툰 공모전
- 28\_취창업 지원센터  
현직자 멘토링 등 우수 프로그램
- 30\_리뉴얼된 신한대학교 시설물
- 34\_디자인학부 졸업 작품전
- 38\_패션디자인학과 무신사 장학생 선발
- 40\_K-패션 오디션
- 42\_치위생학과 치과위생사 선서식
- 44\_대담한 기자들 - '패논패 / 절대평가'
- 48\_[전시]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회
- 50\_[도서] 그리스로마신화 - 이윤기
- 52\_[영화] 그린북
- 54\_[영화] 이터널 선사인
- 56\_이모저모
- 60\_기부금 현황
- 62\_편집후기
- 64\_여백 및 홍보실 자료

# SHINHAN UNIVERSITY SOLUTION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인재창조와 창조·융합교육의 중심으로 100개국 100위권으로의 진입 목표 및 5세부터 99세까지 포함하는 평생교육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5세부터 99세까지 평생학습중심대학!
- ✓ 2023 수시모집 5년 연속 경기북부 1위!
- ✓ 창조와 융합·지구촌 교육의 중심!
- ✓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 시대!



[US. KOREA SOL]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미래교육 솔루션
[100/100]	100개국 100개 대학 설립 목표
[599]	5세부터 99세까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지향
[GX] Global Express	글로벌 시대 국제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





## ‘만개(滿開)’와 ‘회귀(回歸)’, 피어나고 지고 이내 다시 피어나는 꽃들처럼

흔히 겨울은 ‘혹독함’의 상징으로, 인내와 역경의 계절로 비유되곤 합니다. 나무들은 꽃과 잎을 모두 떼어내고, 다가올 봄으로의 회귀를 고대하며 다시 만개할 날을 기다리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겨울은 찬란한 꽃잎은 아니지만, 수수함을 뽐내는 눈꽃이 만개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 겨울은 인고의 계절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더 없이 아름다운 순간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돌고돌아 회귀하며 각 계절의 모든 것에 만개하는 것이 있음. 우리의 모든 시간은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아시고, 독자 여러분께서 한 발 한 발 더 나은 내일의 꽃을 피워내시기를 간곡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른바, ‘대학의 위기’라 불리는 오늘날입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에 대한 인식 변화로 많은 대학들이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한대학교는 이 순간조차 만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4년 정시 모집 분야에서 입학 경쟁률 전국 2위라는 성과를 거두는 등 나름의 ‘눈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이번 204호 신한특독에서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 신한대학교가 피워낸 ‘눈꽃’들을 담아냈습니다. 부디 즐겁게 감상해주시고, 언젠가 찬란히 피워낼 ‘봄꽃’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5월  
편집장 김민성

# 신한대학교, 세계평화를 꿈꾸며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와 DMZ 세계평화 추수 감사제 공동주최 강성종 총장 '전쟁 없는 세상' 염원하며 40일 특별 기도회 진행

〈김민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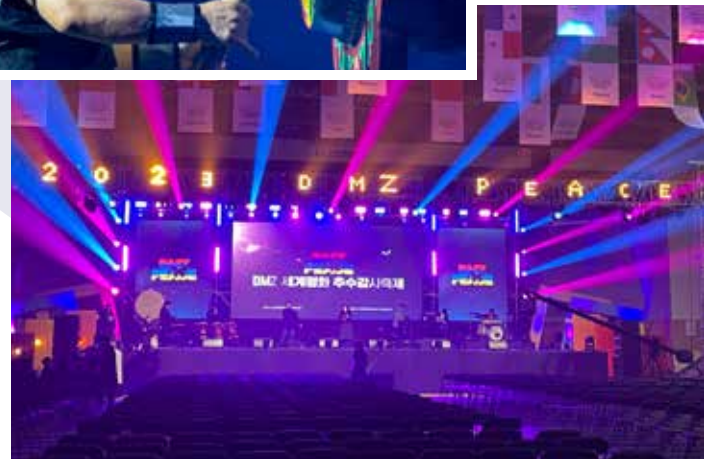
신한대학교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2023 DMZ세계평화추수감사축제'를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와 공동 주최했다.

'DMZ 세계평화추수감사축제'는 "1914 Christmas Again, 2023 Christmas Miracle"을 슬로건으로 한 국제평화행사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구상의 모든 전쟁의 휴전과 종식을 염원하며 진행됐다.

행사 첫날인 24일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캠프 보니파스에서 성탄 트리 점등식 및 DMZ 세계평화 추수감사예배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장헌일 목사(국회조찬기도회)의 인도로 시작되어 모스카 멧소령의 성경봉독 후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가 "전쟁과 평화(마 5: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JSA교회에서 정한식 목사(1군단)의 대표 기도, 정수근 군악대장과 군중병의 연주와 합창이 있었다. 외에도 김영복 목사(사랑과 평화의 교회), 강태윤 선교사(세기총 팔레스타인 지회장), 이재희 목사(분당 햇불교회), 양승재 목사(우리 민족 교류협회장), 최남수 목사(의정부 광명교회)가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의 전쟁 종식을 염원하는 기도와 축도를 했다. 이 자리에는 기독교계 지도자 및 CBS 소년소녀합창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DMZ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40일간의 기도회와 DMZ 세계평화 추수감사축제를 성공리에 마친 강성종 총장은 "DMZ가 무너질 때까지 DMZ에서 평화의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며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대한 결기를 밝혔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를 덮친 전쟁은 많은 비극을 낳았다. 많은 피를 흘리고도 끝내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끝난 전쟁은 오늘날까지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을 남기고 있다. 특히 신한대학교가 세워진 경기 북부는 전쟁의 상흔이 오래 지속된 곳으로, 세계평화를 바라는 희망의 울림이 접경지역인 신한대학교에서부터 울려 퍼진 것은 고무적이다. 대하 캠퍼스에서 시작된 평화를 향한 기도와 염원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지구상 모든 전쟁의 장기적 휴전을 성사시키고, 종전으로 이어지는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5일에는 신한대학교 은혜관 체육관에서 DMZ 평화선언이 이뤄졌다. 정성진 목사(크로스로드선교회)의 개회 기도를 시작으로 전기현 장로(세기총 대표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임동진 목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인총연합회 회장)와 신광수 목사(세기총 사무총장)를 비롯한 외교계, 학계, 군 관계자, 다문화계 대표, 대학생대표, 어린이대표 등 1천여 명의 세계인이 모여 세계평화선언식을 가졌다. 외에도 태권도 공연 "평화아리랑"과 강선욱 무용단의 북 공연 퍼포먼스를 끝으로 2일간의 여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신한대학교 강성종 총장의 환영사와 이봉관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를 비롯한 전 세계 유력 인사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촉구하는 평화 메시지가 영상으로 상영되기도 하였다.

신한대학교와 강성종 총장은 지난 8월부터 DMZ세계평화추수감사축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40일 특별새벽기도회 및 정오기도회를 조직하여 이번 행사까지 세계인의 평화 여정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신한대학교에서 진행된 '40일 특별 기도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40일간 세계평화를 염원하며 학생과 교직원, 경기 북부에 위치한 10여개의 교회들이 동참하여 이루어졌다. 강 총장은 11월 3일 있었던 기도회 후 간담회에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무엇이든 혼자 하는 기도보다 함께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마음으로 기도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신한대학교, 4년제 출범 10년 정시경쟁률 전국 1위, 전국 2위, 전국 3위 ... 석권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도 매년 최고 수시 경쟁률 달성  
2025년 입시에선 수시 논술 전형 도입 예정

〈김유진 기자〉



신한대학교가 4년제 종합대학으로 개편한지 10주년을 맞이했다. 1972년 신한대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2014년 신한대학교로 교명 변경 후 새롭게 출범했으며,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것이다. 1972년부터 현재까지 50년의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화했고, 그 변화들 속에서 학교의 경쟁력 또한 성장했다.

대학교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중 하나로, 입학 경쟁률을 살펴볼 수 있다. 신한대학교는 2014년 교명 변경 직후부터 정시모집 평균 13.54대 1의 경쟁률로 전국 195개의 4년제 일반대학 중에서 1위를 차지하며 눈길을 끌었다. 10년이 지난 현재는 2024년 경쟁률은 4년제 대학 전국 2위, 지난해는 9.26:1의 경쟁률로 전국 3위의 기록을 보였다. 수시 경쟁률 역시 2022년부터 3년 평균 11:1의 경쟁률을 보이며 8년 연속 지원자 수 10,000명대를 상회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의 시국이 학령인구 감소의 상황이라는 점이다. 2021년도부터 우리 사회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학교, 학원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은 폐교와 폐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신한대학교는 최근 3년 평균 수시 경쟁률은 11:1이란 수치를 기록하며 신한대학교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신한대학교의 수시 입학 전형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초기에는 교과, 면접 위주의 일반전형만이 있었다면, 현재는 신한국인전형과 같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추가되었다.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20:1의 경쟁률로 학생들의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안착하였다.

이와 더불어 2025년 신설 예정인 논술 전형의 도입은 또 다른 변화의 시작으로 보인다. 논술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와 논술 90%의 평가 기준을 통해 수험생들이 대학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적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흔히 수도권 유명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진행한다. 그 이유는 논술 전형 자체가 학생들 사이의 높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신한대학교는 11개의 학과에서 논술 전형 수요가 발생하였기에 도입을 결정했다. 논술형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자체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신한대학교는 학생들 개개인의 개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시 전형의 도입을 수시로 검토 중이며 여러 개편을 통해 새로운 전형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신한대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교 반열에 올랐다. 신한대학교가 1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만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 높은 취업률, 다양한 커리큘럼과 실무 위주의 수업, 교통의 편의성 등을 꼽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변화에 발맞춰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로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변화하고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신한대는 여러 개편을 통해 대학이 나아가고자 하는 진취적인 방향을 선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수험생들의 선호로 이어지며 대학의 경쟁력과 원동력으로 이어진다. 학생들은 경쟁력 있는 학교를 선택한다. 신한대학교는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신한대학교의 앞으로의 10년, 20년, 50년의 미래가 기대된다.

# 신한대학교 취업률, 경인지역 2위 ‘쾌거’

취창업팀, 다방면 지원으로 취업률 3년 연속 상위권 유지  
패션디자인전공은 90% 달성, 보건계열 학과도 취업률 85% 이상

〈이민주 기자〉



신한대학교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선도적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에 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데 주력을 쏟고 있다.

2022년 교육부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신한대학교 전체 취업률은 71.2%를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동두천 캠퍼스의 취업률은 76.6%로, 이는 4년제 대학 기준 수도권 5위, 경인지역 2위에 해당하는 성과이다. 학과별로는 간호학과가 87.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컴퓨터공학전공이 78%, 섬유소재공학과, 에너지환경공학과가 각각 75%로 공학계열 학과들의 취업률이 전년 대비 20%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신한대학교는 2023년 공시에서도 전체 취업률 70.2%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고 취업률을 유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른 2023년 일반 대학 취업률 평균인 66.3%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 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69.3%에 달하는데, 이보다 2~3% 높은 수준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높은 취업률을 달성한 학과(전공)는 패션디자인전공이었다. 패션디자인전공은 디지털트윈스튜디오(도식화 수업)와 같은 실무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전공 수업이나 다양한 교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의 결과로 90%라는 매우 높은 수치의 취업률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다음으로는 방사선학과 88.6%, 간호학과 86%, 치위생학과 85.7% 등 보건계열 학과들의 취업률이 80% 이상을 기록했다. 2022년 공시 취업률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패션디자인전공, 행정학과, 미디어언론학과에서 전년대비 약 10% 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대학교 취창업팀은 JUMP-UP+ 취 창업 지원 전략에 따라 국내 외 산업체의 채용 동향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취 창업 역량 강화 및 취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취창업팀 관계자는 “진로 단계별 경력 개발 로드맵에 따라 각 학과(전공) 맞춤형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매해 진행한 수요 요구 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자격증 취득 지원, 현직자 직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을 고도화 할 수 있었다”며 취업률 유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교육 시스템을 적용하여 4차 산업 직무캠프, 취업 멘토링, 면접캠프, 취업 진로 컨설팅, 창업 역량강화, 글로벌 이노베이터 그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신한대학교만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 시키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다.

신한대학교 청년일자리센터에서는 전문 취업 컨설턴트를 활용한 커리어 단계별 로드맵 기반 취업 지원 및 직무별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청년 취업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취업정보 플랫폼인 ‘신한YOU(Shinhan Youth Opportunity Uijeongbu)’를 통해 시기별 솔루션(면접, 자기소개서 등)을 지원하고 워크넷, 의정부시 취업 정보 관련 통합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신한대학교의 취창업 지원 서비스는 취창업팀, 청년일자리센터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해볼 수 있다.

취창업팀, 청년일자리센터에서의 프로그램 지원 뿐만 아니라 학교 차원의 다양하고 꾸준한 지원과 노력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취업률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나아가 신한대학교의 취업률이 날로 고공행진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주역이 될 신한인의 미래가 기대된다.



## 교육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한대 마이크로디그리 전공 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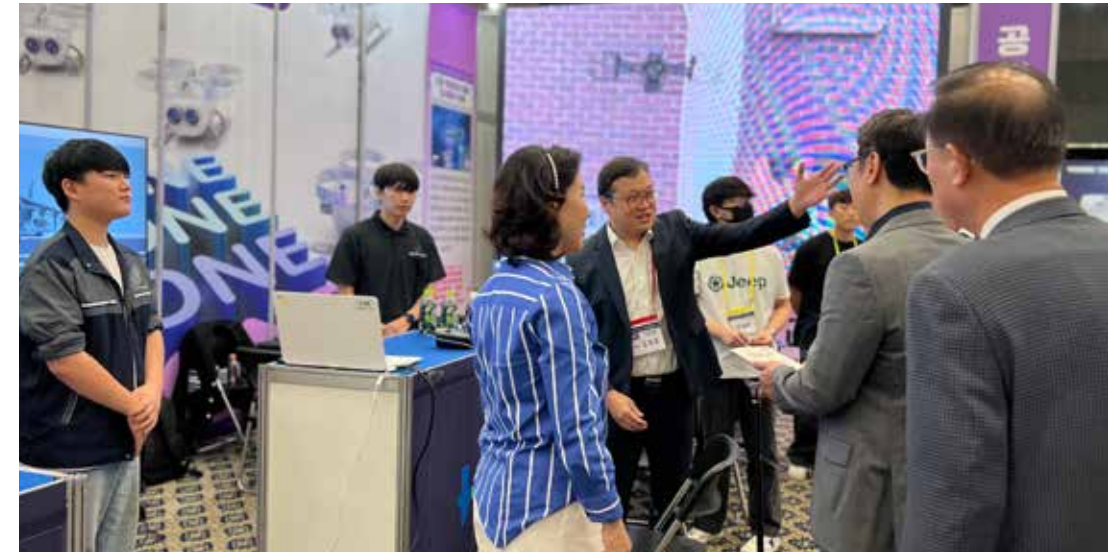
35개 전공 담당 교수와 1대1 상담 ... 드론체험 강의실도 인기  
강성종 총장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미래 설계와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이민주 기자〉

신한대학교는 지난 2023학년도부터 ‘마이크로디그리’ 제도를 도입하여 유연한 학사제도 기반의 현장형 교육과정을 선보였고, 이후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디그리 단과대학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융합교육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은 전공외 분야에 꼭 필요한 최소 단위(Micro) 학점을 이수하여 학위(Degree)를 취득하는 교육과정으로, 주전공 외의 분야를 배우며 실용적인 지식 융합과 응용력을 함양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기존 단일 전공 중심의 전통적 교육과정의 한계에서 벗어난 ‘역량 중심’의 제도인 것이다. 마이크로디그리대학 류현욱 학장은 “신한대학교에 마이크로디그리 체계가 정착한다면, 국내 어느 대학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혁신적 교육과정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불리게 될 것” 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그렇게 개설된 마이크로디그리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이크로디그리 전공박람회’가 지난 9월 6일부터 7일 양일 간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박람회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학생들의 미래 설계와 진로 탐색을 돕고, 2023년 2학기에 운영한 마이크로디그리 35개 전공 담당 교수와 1:1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박람회에는 재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수진 등 다양한 대학 관계자 및 여러 기관 관계자 등 총 2,692명이 참여하며 신한대학교 마이크로디그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국내 타대학의 관계자부터, 국외 기관의 관계자 등 많은 관계자들의 계속된 방문으로 신한대학교 마이크로디그리 제도의 위상을 엿볼 수 있었다.



컨벤션홀 가운데는 전공별 공개수업을 위한 공개강의실이 자리해 있었고, 가장자리로 35개의 전공 상담 부스가 둘러싸는 형태로 마련되어 있었다. 상담부스는 소프트웨어융합형, 첨단기술집약형, 미래산업고도화형, 지역친화형 총 4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었다. 또한 5개의 공개강의실에서는 실제 강의를 진행했는데, 지나가는 방문자들도 볼 수 있게끔 수업 내용을 공개하여 수업 방식,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눈에 띄었던 현장은 ‘드론 빅데이터 융합 지식재산 창출’이라고 하는 이른바 과제참여형 드론 체험 강의실이었다. 해당 부스는 직접 드론을 날려볼 수 있는 체험형 부스로, 학생들이 직접 드론을 날려볼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인근에서 하늘을 나는 드론을 보고 흥미를 느낀 학생들이 방문하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실감형 콘텐츠 VR/AR 시뮬레이션, 아이웨어 디자인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되었고, 몇 개의 체험활동 및 상담부스를 돌며 도장을 받으면 사은품을 주는 등의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성종 총장은 “신한대학교는 국내 대학 최초로 마이크로디그리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타 대학과 차별화된 융합교육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미래 설계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했다”며 “이번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신한대학교 마이크로디그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 혁명 기반의 신산업 분야 융합교육 활성화를 통해 교육혁신을 주도해나가는 신한대학교를 기대하고 응원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마이크로디그리 박람회에 수많은 학생과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신한대학교 마이크로디그리에 대한 기대와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마이크로디그리가 정착되어 만들어 나갈 신한대학교의 성공적 미래를 더불어, 신한대만의 도전적이고 주도적인 교육혁신이 기대되는 바이다.



〈김민성, 조수빈, 김유진, 이민주, 강슬비, 최지원, 신혜미, 구현지 기자〉

2023 신한대 축제

「다시, 푸르게 RE]:MOVE

신한대학교는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다시, 푸르게] RE : MOVE / 2023 신한대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기존과 다르게 1학기 봄철이 아니라 2학기 가을철에 진행되었다는 점이 독특하다. 덕분에 봄 축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가을'의 감성과 낭만이 잘 묻어났다. 축제 현장은 한여름 더위만큼이나 뜨거웠다. 2학기 개강 첫 주부터 진행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캠퍼스에는 학과별 부스와 무대,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로 붐볐다. 해가 질 무렵부터는 학생들의 다양한 공연과 연예인 초청까지 어우러져 말 그대로 '가을밤 낭만'을 완성했다. 이틀간 펼쳐진 행사 현장을 기사들로 그려본다.

축제의 열기를 한층 더하다, 부스 체험

축제의 시작을 알리듯, 교내 운동장 입구에서부터 다채롭게 준비된 부스가 학생들을 반겼다. 조화롭게 어우러진 각양각색의 부스는 본교 학회와 일반 재학생에 의해 직접 기획되고 운영되었으며, 약 4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되어 축제를 빛내주었다.

운영된 부스의 종류는 크게 체험형 부스, 먹거리 부스로 이루어져 있었다. 육안상으로 가장 인파가 많이 몰린 부스는 식품조리과학부의 '미식'이었다. 메뉴는 식사류 2가지와 음료류 1가지로 혼합 판매되었으며, 시식한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 동아리 'SNS'는 뽑기 게임 방식으로 뽑은 쪽지에 해당하는 상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더불어, 본인이 원하는 배지를 손수 제작해보는 체험형 방식의 이벤트를 준비해 재미를 더해줌으로써 축제를 즐기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만남을 주선하는 소개팅 부스, 물풍선 던지기 부스, 의류 판매형 부스, 사격장 부스 등 이색 부스가 알차게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교내에 다수의 외부 푸드트럭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먹거리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더욱 풍성한 축제를 만들어주었다. 무더운 날씨였음에도 부스 운영자들은 지친 기색 없이 열과 성을 다해 체험자들을 맞이하며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는 곧 부스 체험자의 높은 만족도와 큰 호응으로 이어져 부스 참여자 모두에게 보람을 안겨주며 마무리되었다.

**축제의 시작 개막식**

낮에는 다양한 학과별 행사와 부스별 즐길 거리로 몸과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해가 질 무렵,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진행됐다. 개막식은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예도단 시범으로 시작했다. 절도 넘치는 동작으로 학생들의 시선을 빼앗았으며 감탄을 자아냈다.

이어 등장한 신한대학교 강성중 총장과 제4대 총학생회 “무브”의 이재홍 총학생회장이 함께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강성중 총장은 “학생들의 뜨거운 청춘을 항상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말과 함께 “이틀간 진행될 신한대학교의 축제를 후회 없이 즐기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학생들의 환호와 함께 신한대학교 축제의 문이 열렸다.

**뜨거운 열기로 무대를 장악한 동아리 공연  
'흥'&'악당'&'소리패'&'범'**

축제의 메인이라 볼 수 있는 무대 공연은 화려한 퍼포먼스로 축제를 달군 댄스 동아리 '흥' 과 힙합 동아리 '악당' 이 첫 날 무대를 장식했다. 강렬한 무대로 열띤 호응과 떼창을 이끌어냈다. 댄스동아리 '흥' 은 음원 차트를 휩쓸었던 아이돌 그룹의 춤을 선보였다. “스테이씨의 Teddy Bear”,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르세라핌의 UNFORGIVEN”, “엔시티의 영웅”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곡을 선정해 멋진 공연을 만들어 냈으며, 동아리원들의 아름다운 춤 선은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충분했다. 힙합동아리 “악당” 은 독특한 음색과 뛰어난 랩 실력으로 무대를 압도하였다. 학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는 무대 매너까지 갖춰 수많은 학생의 환호를 자아냈다.

어쿠스틱 동아리인 '소리패' 와 밴드 동아리 '범' 은 흥이 돋는 신나는 음악부터 잔잔한 발라드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소화해냈다. 전반적으로 무대 초반에는 발라드나 감성적인 곡을 배치하고, 후반으로 무리익을수록 흥겨운 음악을 배치하여 해가 저무는 동안의 분위기를 그에 맞춰 잘 유도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배경과 관중들의 감성 변화를 고려하여 곡 순서를 배치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수준 높은 공연이었다. 동아리 무대의 뜨거운 열기로 축제의 분위기는 고조되었고, 학생 모두가 축제를 계속 즐겨 나갔다.



**무더운 늦여름밤 한 줄기 선선했, 가수 경서예지**

앞선 공연으로 축제의 열기가 한층 더해진 가운데, 첫날 연예인 공연의 첫 순서로 경서예지가 그 자리를 빛내주었다. 경서예지는 ‘은하수를 닮은 너에게’ 를 시작으로 ‘다정히 내 이름을 부르면’, ‘아로하’ 등 총 5곡의 노래를 열창했다. 경서예지만의 파워풀한 보컬과 감미로운 음색이 더해진 발라드로 무더웠던 현장에 선선했을 전해주고, 공연을 즐기는 관객들은 열띤 환호를 보냈다. 공연 중간 관객들과의 단체 포토타임도 가지며, 마치 한 여름 밤의 꿈같은 추억을 남기고 첫 순서를 마무리 지었다.

**낭만과 열정의 무대, 윤하&호미들**

이어진 연예인 초청 공연은 솔로 가수 윤하와 힙합 그룹 호미들이 장식했다. 윤하는 특유의 청아한 음색으로 무대를 장악했고, ‘비밀번호 486’, ‘오르트 구름’, ‘사건의 지평선’, ‘혜성’, ‘바람’ 대표곡 총 5곡을 부르며 관객들의 낭만을 담당했다.

알아주는 실력파 가수답게 관객들과 상호작용하며 무대 호응을 유도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한 곡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과의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다음 곡에 대한 소개를 하기도 하였고, 전반적으로 윤하라는 가수가 가진 특유의 파워풀한 아우라를 관객들과 나누어 보다 뜨거운 현장을 이끌어냈다.

이어진 호미들의 공연은 흥이 넘치는 힙합 그룹답게, 앞선 무대로 예열된 현장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힙합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로 등장과 동시에 무대를 열광과 열정의 도가니로 만들었으며, ‘꽉 친 주먹속에 라이터’, ‘백반청국장’, ‘사임쌍임’, ‘300’, ‘사이렌’ 등 무려 8곡의 무대를 보여주었다. 특히, 무대 끝물 즈음 선보인 대표곡 ‘사이렌’ 은 현장의 관객들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떼창을 하며 캠퍼스 건물이 울릴 정도로 최고로 높은 텐션의 분위기를 이뤄냈다.



### '청춘'들이 꾸며낸 무대, 청춘가요제

올해 축제 역시 '청춘' 과 '낭만' 하면 빠질 수 없는 청춘가요제가 진행되었다. 9월 열렸던 축제는 빠르게 지고있는 해 덕분에 선선히 부는 바람까지 축제를 즐기기에 완벽한 배경이 되어주었다. 청춘가요제를 통해 학생들이 주인공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공연의 포문을 열었다. 청춘가요제인 만큼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다. 참가자와 무대 아래 앞쪽에는 세 명의 심사위원들이 앉아 탄탄한 구성으로 본 행사가 이루어졌다. 재학생들은 무대에서 자신들의 끼를 발산하였다. 솔로로 나와서 공연하거나, 함께 합을 맞추고 팀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무대를이끌어갔다. 참가자들은 무대 위에서 수준 높은 실력으로 공연을 보여주었고, 그 무대 아래에서는 공연을 관람하는 학생들이 열띤 호응과 응원을 무대 위로 보내주었다. 높은 가창력에 놀라 감탄사를 내거나, 흥에 겨워 노래를 따라부르는 학생들도 있었다. 무대가 끝난 뒤에 박수로 보답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마지막 순서의 참가자까지 무대가 끝나고 난 뒤 바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자를 호명하기 전까지의 긴장감과 수상자가 호명되고 난 뒤 수 상하는 참가자의 기쁜 환호성까지 폭 빠져 이 축제를 즐기기에 충분했다. 참가자들 모두 멋진 공연을 선물했고, 관객들은 그들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이었다.

### 신한인의 에너지를 나누다, 치어리딩 대회

축제 2일차, 그 첫 시작은 치어리딩의 활기찬 무대와 함께 막을 올렸다.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지자, 참가 학생들은 힘찬 몸짓과 역동적인 동작을 선보이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또한 무대가 진행되는 동안 힘든 동작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관객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참가자들은 각각 다른 무대를 펼쳤지만, 관객과 소통하며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치어리딩 대회 대망의 1위는 치기공학과가 차지했다. 치기공학과와 무대는 다수의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화합을 이루며, 더 큰 에너지를 끌어내는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인간 피라미드 구조의 안무를 여러 번 소화해내며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다. 2위는 임상병리학과, 3위는 글로벌관광경영학과가 차지하였다.

Cheer UP!



### 독보적 감성과 통통튀는 매력, 비비

치어리딩 무대의 열기를 이어받아 연예인 공연은 '비비'가 먼저 무대에 올랐다. 남자 댄서들과 함께 '파도', 'why y', '카지노', '나쁜x', '쉬가릿', '비누', 'the weekend' 등의 곡들을 불러 무대를 채웠다. 비비는 트렌디한 감성과 매력적인 목소리로 신한대학교 학생들의 환호성을 자아냈다. 또한 학생들에게 마이크를 전환하며 호응을 유도해 떼창 소리와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달아오르게 했다. 공연 도중 비비에게 지목 받은 학생은 무대 위로 올라와 춤을 선보이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학생들과 소통하는 훌륭한 무대 매너도 볼 수 있었다. 1시간 가까이 오랜 시간동안 완성도 높은 공연을 진행하고 내려가던 중 학생들의 열띤 앵콜 요청에, 마지막으로 신곡인 '한강공원' 곡을 선보인 후 무대를 마쳤다.

### 가장 뜨거웠던 축제의 피날레, 다나카

이번 신한대축제의 마지막 무대는 스페셜 게스트인 다나카가 장식했다. 마지막 순서인 만큼 많은 관객들의 기대를 모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듯 다나카의 등장으로 현장은 엄청난 활기를 내뿜었다. 다나카는 'we are!', '바카미타이(다메다네)', '와스레나이', '몸매' 등 무려 총 9곡의 무대를 선보였다. 노래를 잘 알지 못하는 관객들도 다함께 뛰며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댄스곡부터, 감성에 흠뻑 젖은 촉촉한 발라드까지 매우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다나카는 직접 학생들 앞으로 내려가 팬서비스를 해주는 센스까지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다나카의 재치 넘치는 공연으로 관객들의 호응은 마치 콘서트를 방불케 했으며, 마지막까지 뜨거운 열기가 가시지 않았던 축제의 피날레였다.

이들간 이어진 행사는, 간소하게 진행된 폐막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쳐졌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기존과 다른 2학기, 그것도 개강 첫 주에 진행되는 축제에 약간의 우려가 있었으나 축제가 시작되고부터는 눈 녹듯이 사라졌다.

# 학과별 특색을 내비치다!

다채로운 학과 & 동아리 부스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신한대 마스크트 '호이'부스까지,



11월 15일부터 이틀간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은혜관 지하 체육관에서 2023년도 학술제 행사가 개최되었다. 행사 기간동안 학과별 특성을 살린 다채로운 부스들이 준비했으며, 게임, 뽑기, 사진 등 여러 방면으로 각 학과를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학술제 부스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신한대학교 총학생회 부스를 찾아야 한다. 총학생회 부스에서 도장판을 수령해, 학과별 부스체험을 통해 모은 도장으로 호이 굿즈를 뽑을 수 있는 뽑기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신한대학교 마스크트 캐릭터인 '호이'는 작년 2022년도 학술제에서도 귀여운 굿즈들로 인기몰이를 한 바가 있다. 이번 2023년도 학술제에는 호이 머그컵, 호이 마우스패드 등 6가지의 호이 굿즈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또한, 〈안녕? 난 호이야〉 부스에서 뽑기뿐만 아니라 호이 굿즈를 세트 형식으로도 구매 가능해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모든 수익금은 기부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안경광학과 부스에서는 A.R.K 시력검사와 더불어, 안경 빨대로 음료 빨리 마시기 대회를 개최해 순위권에 들면 상품을 받아 갈 수 있었다.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는 신한체력측정 부스를 운영했다. 종목은 건빵 빨리 먹기와 턱걸이 2가지로 진행됐다. 건빵 빨리 먹기에 성공하면 전투식량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환경공학과는 자가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스무디를 만들어 볼 수 있었다. 운동도 하고 음료수도 마실 수 있는 일석이조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이다. 글로벌관광경영학과는 Blackjack 카드 게임을 진행했다. 플레이어는 딜러에게 받은 칩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데,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면 얻은 칩을 통해 금액권 뽑기 찬스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사진이다. 이에 산업디자인학과는 미니 전시회와 함께 스티커사진 부스를 운영하였다. 예전 유행하던 스티커사진이 다시 유행세를 타며, 많은 이들이 부스를 찾았다. 미디어영상학과에서는 학술제를 방문하는 이들의 추억을 담은 셀프 사진관을 운영하였다. 또한 보이는 라디오 부스도 함께 진행하였는데, 이는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송출되어 방문하지 못한 이들도 학술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국제개발협력학과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인 SDGs에 대해 알아보며, 버려지는 커피박을 활용한 바다 스크럽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K-뷰티학과에서는 두피 진단과 본인의 두피 타입에 맞는 샴푸를 증명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아로마 향수 만들기 체험을 통해 본인만의 향수를 만들 수 있었다. 유아교육과는 미술영역: 소원 팔찌 만들기, 과학영역: 미니 비누 만들기, 수조작 영역: 기억해봐의 3가지 영역으로 부스 체험을 진행해 나갔다. 또, 첨단소재학과와 '메이커스스튜디오' 부스가 인기를 끌었는데, 본인이 원하는 사진이나 '호이' 캐릭터를 전사염 기법을 통해 티셔츠나 면파우치에 새길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체험 부스는 더욱 풍부한 학술제를 즐길 수 있게끔 하였다.

학과 부스가 아닌 동아리 부스들도 눈에 띄었다. 그중, 환경동아리인 그린폴리스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팔리지 않는 못난이 농산물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알리며, 못난이 굴 배부 행사를 진행했다. 쓰레기나 이면지를 이용해 투표를 하면, 매 투표당 굴 하나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굴껍질을 최대한 길게 까서 1~7등까지 상품을 제공하는 굴껍질 이벤트도 진행하였다. 둘째 날인 16일 14시, 학술제 무대에서는 신한CREATIVE장학금 공모전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이는 신한대학교 장학제도 다양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공모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교 발전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다.

다양한 학과들이 그들만의 역량을 더하여 만든 부스 하나하나가 학술제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학생들의 노력은 학술제를 방문한 이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으며, 뜨거운 반응 속에 이번 2023년 학술제 또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In Shinhan Library- ①

# 신한대 중앙도서관, 재즈부터 SF까지 폭넓은 스펙트럼 선보이다

‘김아리 재즈 음악 콘서트’, ‘천선란 작가 초청 북토크’ 개최

〈이민주 기자〉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매년 책과 강연이 어우러진 ‘북토크’ 를 진행하고 있다. 앞선 북토크에는 김애란 작가, 김겨울 작가, 박준 시인 등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역시 북토크가 진행되었는데, 올해가 지난해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두 차례의 북토크 행사가 개최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9월에 진행된 ‘김아리 재즈 해설가와 함께하는 재즈콘서트’ 와 11월에 진행된 ‘천선란 작가 북토크’ 로 하반기를 한층 더 풍성하고 다채롭게 채워냈다.



## 문학과 재즈 음악의 환상적 조합, ‘재즈 음악 콘서트’

중앙도서관은 지난 9월 14일 에베에셀관 원형극장에서 신한대학교 대학구성원 및 의정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학과 음악이 있는 재즈 음악 콘서트’ 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재즈 콘텐츠 기획사 ‘아트렛’ 의 대표 김아리 재즈 해설가와 강승훈 퀸텟(피아노 강승훈, 보컬 김민희, 트럼펫 박종상, 베이스 조민하, 드럼 한경욱)이 함께했다. 김아리 재즈 해설가의 문학 해설과 강승훈 퀸텟의 아름다운 연주로 그 어느 때보다 색다른 조합을 선보였다.

공연의 주제 도서는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잭 케루악의 『길 위에서』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여자 없는 남자들』 총 3권이였다. 김아리 재즈 해설가는 해당 도서에 나온 장면들을 소개한 뒤 내용을 해설하고, 강승훈 퀸텟은 그에 어울리는 재즈 음악을 연주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연주와 해설이 다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및 퀴즈 타임이 이어졌다. 관객들은 듣고 싶은 곡을 신청하기도 하고, 퀴즈 타임에는 열정적으로 문제를 맞혀 선물을 받아가기도 하며 원형극장을 유쾌한 분위기로 채워나갔다.



## SF로 경험하는 경계의 허물어짐, ‘천선란 작가 북토크’

11월 15일에는 최근들어 SF(Science Fiction) 소설로 각광받고 있는 ‘천선란 작가 초청 북토크’가 에베에셀관 원형극장에서 진행되었다. SF 장르 자체가 현재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현장을 찾은 관객들의 눈빛은 기대로 가득 차있었다.

북토크는 『천 개의 파랑』, 『어떤 물질의 사랑』 총 2권의 주제 도서로 진행되었다. 『천 개의 파랑』은 2019년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천 개의 파랑』은 안락사 위기에 처한 경주마 ‘투데이’와 폐기를 앞둔 휴머노이드 가수 ‘콜리’,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는 소녀 ‘은혜’ 등 각자 저마다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다. 『어떤 물질의 사랑』은 <사막으로>부터 <레시>, <그림자놀이>를 포함한 총 8편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실린 단편집이다.

천선란 작가는 자신의 삶 이야기와 함께 강연을 꾸려나갔다. 그 덕분에 관객들은 어렵지 않게, 공감하며 강연을 즐길 수 있었다.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강연을 했지만 작가와 관객 모두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북토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참여 신청 시 받은 사전 질문과 현장 질문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수준 높은 질문들과 수준 높은 답변들의 연속으로 듣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였다. 질의응답까지 모두 끝난 후에는 천선란 작가의 사인회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사인회를 진행하는 모습은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계속해서 양질의 인문학 강연을 개최해왔다. 꾸준한 수요조사와 만족도조사를 통해 대학구성원 및 지역주민의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In Shinhan Library- ②

# 만화로 그려낸 도서관 세계, '볼거리 풍성'

제 2회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진대회 '도서관 카툰 공모전' 성료  
김기순 도서관장 "만화는 삶의 유희를 주는 좋은 친구"

<이민주 기자>



지난 11월 2일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 북카페에서 '중앙도서관 카툰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시상식에는 수상 학생들이 뿐만 아니라 김기순 도서관장 외 많은 도서관 관계자들이 자리하여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중앙도서관 카툰 공모전은 중앙도서관의 상징적인 요소를 고려한 카툰 제작 공모전으로, 도서관 이용문화 캠페인부터 도서관을 모티브로 한 재미있는 에피소드, 도서관 관련 기타 주제 중 1개를 선택하여 5컷 이상 12컷 이내의 만화로 제작 후 출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 프로그램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개개인의 창의 역량 발휘뿐만 아니라 팀 단위의 협업을 통한 활동을 장려하였고, 디지털 기기의 활용뿐만 아니라 손그림을 통해서도 출품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많은 참여를 유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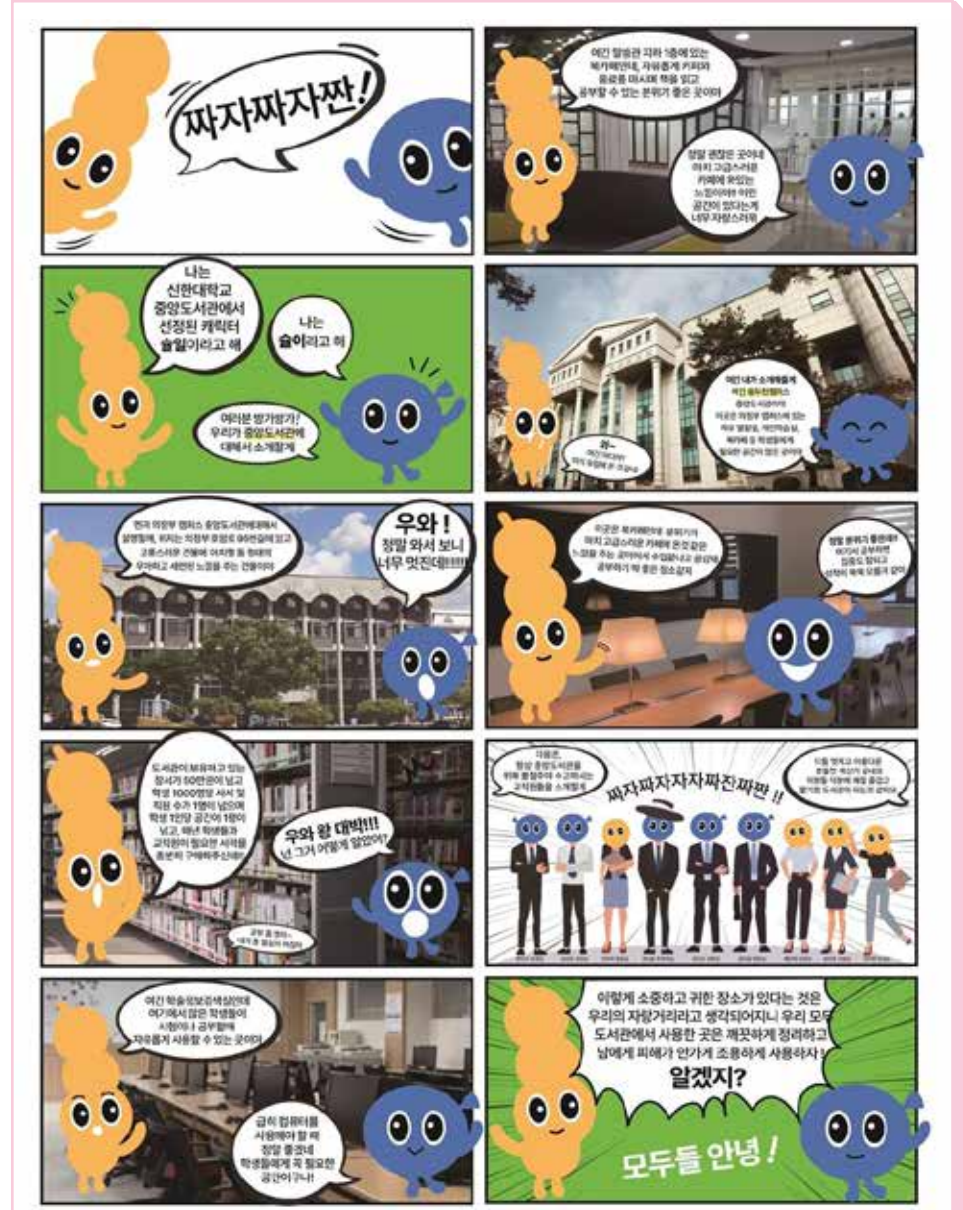
공모전은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후 두 차례의 심사 과정을 거쳐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팀 단위 인원 포함 총 41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38개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시상에는 총장상(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각 1팀, 장려상 5팀으로 총 8팀이 입상하였다.

김기순 도서관장은 "이번 공모전 또한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것 자체가 만화가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친근히 생각하는 친숙한 매개체로, 볼거리가 많은 이 시대에도 삶의 유희를 주는 좋은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메시지 전달, 효과적인 교육 활용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 며 "많은 학생이 다양한 분야에 녹아질 수 있는 이 친숙한 도구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며 축사를 전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은 중앙도서관 관내 및 홈페이지 등에 전시되었고, 도서관 이용 문화 캠페인에도 활용하는 등 이용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도서관 홍보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총장상(대상)의 영예는 산업디자인학과 양현진 학생에게 돌아갔다. 양현진 학생은 <술일, 술이와 함께하는 중앙도서관 소개>라는 제목으로 중앙도서관 마스코트 캐릭터인 술일, 술이를 활용하여 캐릭터가 더욱 친근하게 도서관의 시설, 학술정보검색실 등의 정보를 소개해주는 내용의 작품을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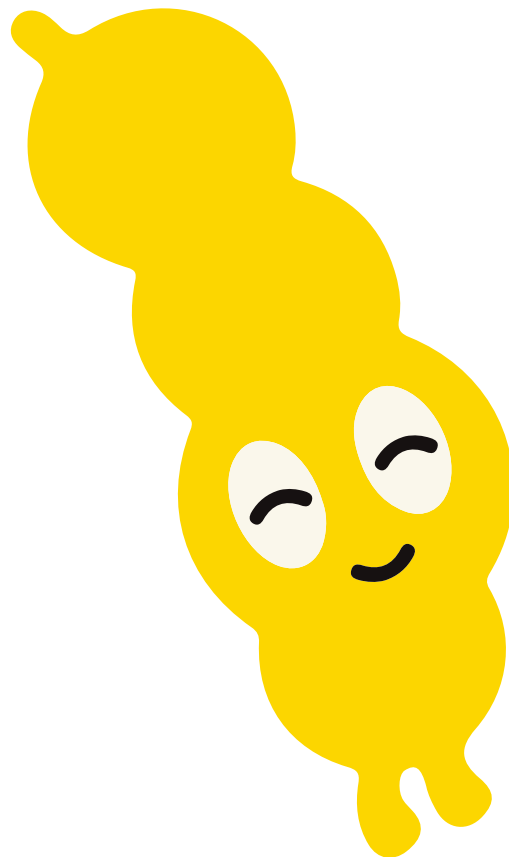
양현진 학생은 총장상 수상 후 "단순히 주변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중앙도서관의 다양한 시설과 정보들을 더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참여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1등까지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다음으로 최우수상은 패션디자인학과 김지윤 학생, 미디어언론학과 김민지 학생이 수상하였다. 2명이 팀으로 1개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글 담당과 그림 담당으로 나누어 제작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알쓸신잡 : 알고보면 쓸모있는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 잡학정보>라는 제목으로 연령, 성별 등의 제한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평등한 도서관의 문화시설을 설명하는 작품을 제작했다.

김지윤, 김민지 학생은 “최근에 일부 지자체에서 도서관에 지원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이 도서관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깨닫게 될만한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제작하게 되었다”며, 이에 덧붙여 “처음에 진부할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저희의 뜻이나 마음이 잘 전달된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기순 도서관장은 “이번 공모전 또한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주셨는데, 이것 자체가 만화가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친근히 생각하는 친숙한 매개체로, 볼거리가 많은 이 시대에도 삶의 유희를 주는 좋은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메시지 전달, 효과적인 교육 활용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며 “많은 학생이 다양한 분야에 녹아질 수 있는 이 친숙한 도구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은 중앙도서관 관내 및 홈페이지 등에 전시되었고, 도서관 이용 문화 캠페인에도 활용하는 등 이용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도서관 홍보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 “현직자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신한대 취창업팀, 의정부시와 함께 현직자 멘토링 사업 실시

〈구현지 기자〉

신한대학교 취창업팀과 의정부시가 주관하는 ‘현직자 직무 멘토링 사업’이 지난 2023년 11월 14일~17일 진행되었다.

신한대학교 취창업팀은 재학생들의 취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부서로서, 진로지도 및 취창업 역량강화, 실전 취창업지원 등 신한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직자 멘토링’은 의정부시 관내 대학 취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한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현직자 멘토링은 직무능력 표준(NCS)기반의 직무 중심 채용 동향에 맞춰 직무 역량에 대해 이해하고 맞춤형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간으로 공사/공기업, 마케팅/MD, IT/SW개발 총 3개 분야 현직자 멘토를 중심으로 3명~4명의 소그룹 형태로 진행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직자 멘토의 생생한 근무 경험을 토대로 직무 이해, 업계 동향과 비전, 진로 준비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취창업팀의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은 사회진출의 출발선에 있는 학생들의 진로 고민 및 취업에 관한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으며, 실무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전해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의정부시 신한대학교 | 학생처 / 취창업팀

## 2023 의정부시 관내대학 취업지원사업 현직자 직무 멘토링

신한대학교 취준생들을 위한 현직자 직무 멘토링 신청 GO!

현직자의 실무 경험 중심 직무정보 및 취업준비 TIP 제공, 사전질문 및 현장질문 기반 Q&A

<b>참여대상</b>	신한대학교 취업준비생 및 재학생
<b>운영장소</b>	대면 / 행합관 1층 취창업상담실
<b>모집인원</b>	각 직무당 10명 (1시간당 3~4명의 소그룹 진행)
<b>신청기간</b>	2023. 10. 25.(수) ~ 11. 8.(수) <b>참여신청서 제출</b>
<b>참여혜택</b>	2023-2학기 취업특강 마일리지 5점 부여 및 기프티콘 지급
<b>운영내용</b>	운영시간 중 참여가능한 1시간이 있어야 함

날짜	시간	직무	멘토소속/부서
2023. 11. 14.(화)	13:00~16:00	공사/공기업	
2023. 11. 16.(목)	15:00~18:00	마케팅/MD	
2023. 11. 17.(금)	15:00~18:00	IT/SW개발	

**문의사항** 접수문의: 신한대학교 취창업팀 031-870-3145  
교육 및 워크넷 등록문의: 의정부일자리센터 031-828-2877

이번에 진행된 현직자 멘토링은 소그룹 형태로 진행된 만큼 질의응답에 충분히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과 직무와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였으며, 멘토는 학생들의 질문에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학생들의 고민에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낌없는 답변으로 보답하였다.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취업 준비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어서 좋았으며, 여러 질문과 궁금증에도 많은 답변을 듣고 해소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참여한 학생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사/공기업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은 “현직자의 관점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각 기업의 인재상, 업무 범위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적성에 맞는 진로를 정할 수 있었다”라며 “함께 해당 직무의 현실적인 측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좋았다”고 전했다.

신한대학교 취창업팀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직무 정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취창업팀은 매년 신한대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전공 맞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취업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취창업팀의 학생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의 방향성과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보하길 바란다.





# 사립 명문 종합대학 ‘신한대학교’, 휴게 시설 확충 ... ‘명품 대학’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복지 신설...  
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신혜미 기자〉

## 학생들에게 최상의 시설을 선사하다, 신한대학교 내 풋살장 개장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올 무렵, 교내 시설물 곳곳에도 변화가 찾아와 새로운 시작을 본격화했다. 모두의 관심 속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곳은 풋살장이었다. 신한대학교 운동장 부지 내에 설립된 ‘힙 그라운드’ 풋살장은 올해 2023년 2학기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풋살장은 행함관과 말씀관 사이, 운동장 외각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풋살장은 학생 전용 구장 1개, 외부인 구장 2개로 총 3개 설치되었다. 풋살장은 강의 시간에 수업 장소로 활용되며, 방과 후에는 학생들의 여가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풋살장의 주 이용자인 학생들 대부분이 예상했던 기대치 그 이상으로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이용자들이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이용 방법과 안전 수칙 등 체계적인 규칙을 기반으로 운영됨으로써 최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본교 축구 수업 수강생으로서 풋살장 이용 경험이 많은 미디어영상학과 1학년 이기성 학생은 “갓춰진 곳에서 체육 수업하니까 수업 몰입도 향상에 도움되며 수업 퀄리티가 높아졌다.” 고 말했다. 이어, 최신 시설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구장 크기가 넓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좋다.” 며 호평과 함께 재방문 의사를 전했다.

풋살장은 이용 소음과 공간 차지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우려가 무색하게 본교와 조화를 이루어 유연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장 근처에 있던 돌계단과 벤치를 포함한 기존 산책로도 풋살장 면적에 포함되어 새로운 산책로로 탈바꿈했다. 형형색색한 카펫이 산책로 길 위에 배치되었고, 테이블과 의자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이로써 교내 운동장은 풋살장으로 캠퍼스 내 멋이 한층 더해져 보다 활기차게 변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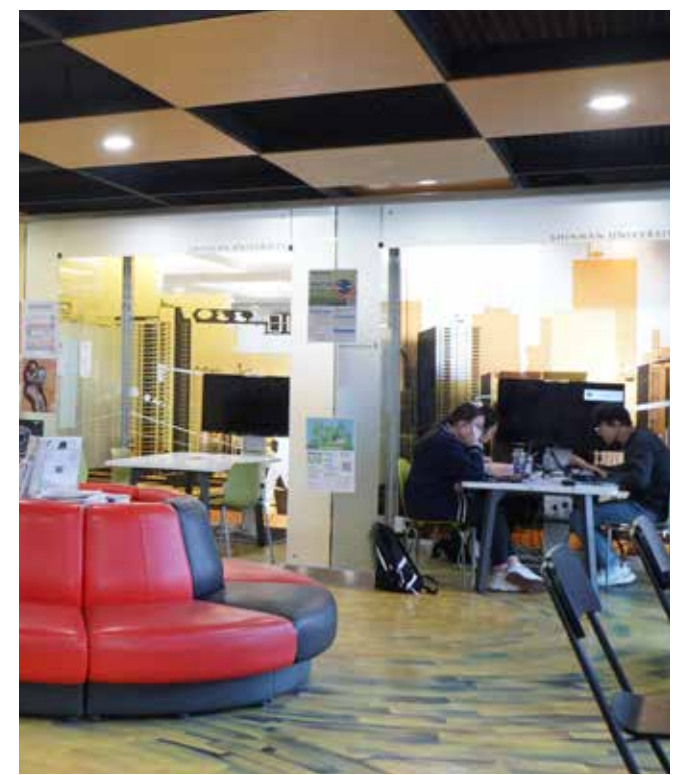


## 스터디와 휴게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다, ‘신한 YOUTH 라운지’

신한대학교 학생 및 의정부시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 관·학 협력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에 의해 신한대학교 청년일자리센터가 ‘신한 YOUTH 라운지’ 를 오픈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설립된 ‘신한 YOUTH 라운지’ 는 편리성을 갖춘 실용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존에 이용되던 학습공간을 재단장 하였다. 2개의 큰 테이블, 창가 쪽 카페 테이블 등의 가구들을 추가하고 재배치했으며, 벽공사와 냉난방 공사를 비롯한 시설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새로움을 더했다.

‘신한 YOUTH 라운지’ 는 신한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행함관 1층에 위치해 있다. 이용 대상자는 본교 재학생·졸업생과 의정부시 거주 청년이다.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에도 상시 이용이 가능하다. 별도로 정해진 이용 방법과 제한 사항은 없다. 평소엔 학생들의 조별 활동에 공간이 유용하게 활용되며, 시험 기간에는 스터디카페처럼 개별 학습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신한 YOUTH 라운지’ 조성은 지역 청년들 간에 소통 및 교류를 도모하며 커뮤니티의 장을 마련해 학생들의 정보교환 환경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큰 호응을 받았다. 청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통해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활동과 취창업 프로그램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해 보면서 본인의 직무 역량을 강화시켜 자신의 꿈과 미래를 그려나가 보길 바란다.





### 배움과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 '북카페 & 휴게실'

신한대학교 '북카페'는 17년도 3월에 개관되어 6년째 학생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으로, 자유롭게 오가며 머무를 수 있는 학습공간이다. 진리관 지하 1층에 자리 잡았으며, 학생 식당과 근접해 있어서 이용하기 편한 곳에 위치해 있다.

북카페는 학생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소통하며 학습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기둥을 둘러싸고 있는 카페 테이블과 벽을 마주 보는 테이블에서는 개별 학습하기에 적합한 독서실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외 여러 개의 큰 테이블에서는 조별 활동과 더불어 담소를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하기에 좋은 카페 느낌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대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감각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발길을 이끌며, 학습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갖춰져 있어서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곳이다.

같은 위치의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신한대학교 휴게실' 역시 상당하다. 남·여로 분리 운영 중인 휴게실은 본교 학생들의 쉼터로써 휴식을 통해 지친 체력을 보충하며 공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안정감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

각 남·여 휴게실에는 방문자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빈백이 구비되어 있다. 많은 이용자 수에 비해 빈백의 한정된 수량으로 부족함을 느끼던 재학생들이 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총학생회에서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2학기부터 빈백의 개수를 추가 배치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쾌적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었다. 학생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는 휴게실은 이용 경험자들의 재방문으로 항상 붐비고 있다.

북카페와 남녀휴게실의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별다른 준수 사항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학생 복지 시설이며, 학생들의 학업능력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다.

# 대학서의 마침표, 미래로의 첫걸음, 신한대학교 디자인학부 졸업 작품전 '성황리 마무리'

〈강슬비, 서원빈, 김민성 기자〉



신한대학교 디자인예술대학 디자인학부는 세 개의 학과(패션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디자인 학부의 졸업반 학생들은 그동안의 배움을 토대로 실제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전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그들이 빚어낸 멋진 결과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 패션디자인학과 7번째 졸업패션쇼, FREE:ISM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 학생들에게는 '패션디자인의 4년은 졸업패션쇼를 위한 시간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전공 과정에 있어 졸업 패션쇼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의 큰 행사가 지난 6월 9일, DDP 패션몰에서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이는 4년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그 배움 속에서 자신이 키워온 역량과 디자인적인 감각을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매우 뜻 깊고 의미있는 쇼이다. 2023년에 맞이하는 7번째 졸업패션쇼는 'FREE:ISM' 이라는 테마를 잡아 선보였다. 이번 졸업패션쇼에서 '개별 작품' 이라는 틀을 깬 새로운 도전을 했다. 기존에는 개인 작업으로 개별적인 진행이 이루어졌던 이전의 졸업패션쇼와 다르게 조별로 팀을 구성하여 각 조에서 하나의 브랜드를 런칭하는 방식으로 시도하여 '조별 작업' 으로 진행되었다. 4-6명으로 구성된 4개의 조가 각 조의 컨셉과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가상의 브랜드를 만들었다.

사이버틱한 디자인, 내면과 외면의 조화, 현대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 인간의 육체에 대한 아름다움 등 다양한 컨셉과 디자인을 담은 4학년 학생들의 첫 번째 쇼 데뷔 무대가 펼쳐졌다. 이는 쇼에서 다양한 시각적 재미를 유발했다. 전체적인 컬렉션은 다른 느낌을 주지만 그 안에서 조별 컬렉션은 통일된 컨셉으로 같은 느낌을 주어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컬렉션에서 디자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완성도 부분이나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써서 준비했으며 디자인하여 제작한 옷과 어울리는 스타일링 아이템도 손수 작업한 팀도 대다수였다.

졸업패션쇼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하고 준비했던 학생들은 약 20여분의 짧은 시간동안 자신들이 쏟아 부었던 노력의 결과물을 관객에게 선보였다. 짧은 쇼였지만 쇼가 끝난 뒤 관객들의 박수 소리와 함성이 이어졌다. 열심히 도전하고 끝내 본인들이 원하는 쇼를 만들어낸 패션디자인전공 4학년에겐 박수를 보낸다.

# Fruit Fruit

## 산업디자인학과 졸업전시, “푸룻푸룻”

지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던 산업디자인학과 졸업전시는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학문의 마침표가 되었다. 47명의 예비 디자이너들은 그간 노력을 쏟으며 졸업전시 준비에 임했고, 완성된 졸업전시의 규모는 노력의 결실을 맺기 충분했다.

이번 졸업전시의 테마인 “푸룻푸룻”은 매실나무에서 영감을 얻었다. 매실나무는 열매를 맺기까지 12년의 세월을 보낸다. 12년간의 학창 시절로 작은 열매를 맺은 예비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에 대한 열망을 새싹과 비유하며, 다시금 다른 열매로 꽃피우길 기원한다. 전시의 서문은 “또 어떤 열매를 맺어갈지 푸룻푸룻 젊음의 생기가 가득한 47명의 결실을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간단한 인사말을 덧붙였다.

입구로부터 시작되는 예비 디자이너들의 졸업작품들은 곧바로 눈길을 끌었다. 입구 메인엔 안내 데스크가 있어 리플렛과 책자를 안내해 주고, 포스트잇으로 간단한 인사말을 덧붙일 수 있었다. 좌측엔 개회식장과 이번 졸업전시를 홍보하는 홍보영상이 준비돼 있었으며, 체험형 포토존도 마련돼 있었다.

이후 첫 번째 파트인 시각디자인졸업연구 과목의 작품부터 시작정보디자인 작품, 그래픽프로모션 디자인과 광고미디어 디자인, 마지막으로 GUI디자인 과목의 작품들을 차례차례 감상할 수 있었다. 전시장의 위치로 선정된 대학로 홍익아트센터는 대극장, 소극장, 갤러리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예비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을 더욱 가치 있게 빛내줬다.

졸업전시에 참여한 김유동 학생은 “4학년 졸업전시의 경우, 주제 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됐다. 그전부터 희망하던 주제, 분야를 시각화한다는 점이 매우 즐거웠으며 기억에 남는다. 다만 힘들었던 점은 2, 3학년 시기에도 잠을 줄이며 과제를 했었지만, 졸업작품의 경우 주말까지 다 반납을 해야 한다는 점, 마감에 대한 압박, 스트레스가 상당히 작용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졸업전시가 대학 생활의 전부이자 끝이라고 치부될 수 있으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아닌 다른 디자이너와의 협업, 실무에서의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적당한 기대감과 긴장이 된다.”라고 전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 “현재는 적성과 관련 있는 학원에 등록하며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계속 내딛겠다.”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디자인과의 꽃이라 불릴 수 있는 졸업전시를 무사히 마친 47명의 예비 디자이너에게 박수를 보내며, 졸업 이후의 더 큰 무대로 도약하는 디자이너가 되길 응원한다.



## 실내디자인학과 “<ZIP>”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RNL(로즈앤라임)갤러리 지하에서 신한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와 졸업작품전이 열렸다.

작품전 이름은 ZIP으로, zip은 데이터를 압축, 보관하기 위한 파일 형식을 의미한다. 이는 새내기로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활동이 정리된 zip 파일을 마주하며, 메우고, 비워지며, 병합과 재탄생, 수정을 거듭하는 파일의 존재에 ‘우리’를 투영한 의미의 전시이다. 나아가, 압축을 해제하면 우리의 4년 간의 시간과 노고의 축적으로 쌓인 파일들이 해방감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담아내었다. 작품전 개요는 졸업 후, 먼 훗날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갈고 닦으며 각기 다른 주제와 색으로 압축되어 있던 것들이 고유의 색을 내뿜는 날을 고대하고, 새로운 zip을 기약한다고 설명한다.

작품전 당일에는 타 학교의 의상디자인학과와 시각디자인학과 등 교내 관련자들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여 4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펼쳐낸 신한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했다. 현장에는 관람객들을 위한 직관적인 판넬을 설치하고, 인테리어 영상을 작품과 함께 상영함으로써 작품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번 졸업작품전은 실내디자인학과 전공생들이 실제 제작과 전시관대어, 홍보까지의 실무를 간접적으로나마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의 장이었다. 세부적으로, 실제 갤러리에 작품을 설치하고 철거하며 작품을 더 돋보이게 하는 장소와 조도를 고려하면서 실제 업무 환경에서 챙겨야 할 디테일을 익히는 데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실내디자인학과 구혜림 졸업작품전 위원장은 “펜데믹 시국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 전시를 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 한다.”라며 작품전 소감을 전했다. 이어서 그는 “펜데믹 환경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며 달려온 만큼 어려웠던 것도, 얻은 것도 많은 전시였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것은 학교에 남겨두고 사회로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려 한다”라며 말을 마쳤다.

세 학과의 각 졸업 작품전은 교내 교수진들 뿐 아니라, 방문한 외부 인사 및 학생 관람객들에게도 호평을 받았다. 4년 동안의 배움을 어떠한 결과물로 구현해 낸 학생들의 얼굴에는 보람과 성취감이 묻어났다. 졸업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 이제 학교를 벗어나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빛날 신한대학교 디자인학부 졸업생들의 미래가 기대된다.

# ‘무신사 패션 장학 프로그램 4기’ 양하린&한상명 학생 선발

‘취업’ 아닌 ‘창업’ 선택, 꿈을 향해가는 학생들  
패션디자인학과의 실무 중심 커리큘럼 빛을 발해

〈김민성, 최지원 기자〉

지난해 9월 27일,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의 양하린 학생과 한상명 학생이 ‘무신사 패션 장학 프로그램 4기’에 선발됐다.

‘무신사 패션 장학 프로그램’은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에서 인재 육성 및 취창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장학 프로그램으로, 전국 단위의 패션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개인과 팀 부문으로 모집하고 있다. 장학생 선발은 1차 포트폴리오, 브랜드 사업계획서 및 영상 소개 심사를 거친 후, 2차 면접을 통해 결정된다. 전국의 우수 패션디자인 전공생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팀 단위 장학생으로 선발된 양하린 학생과 한상명 학생을 만나보았다.



# MUSINSA

## “올해 안에 저희의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이 목표예요”

양하린 학생은 최종적인 목표로 ‘창업’ 을 꼽았다. 같은 팀으로 장학생에 선발된 한상명 학생의 목표 역시 똑같다. 한상명 학생은 “취업을 통해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좋지만, 창업을 통해 ‘자신의 것’ 을 직접 부딪치며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성취감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라며 창업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무신사 패션장학 프로그램 4기에 지원하게 된 계기도 취업이 아닌 창업의 길을 걷기 위한 일환이다. 장학생으로 선정될 시 팀 단위 500만 원의 장학금뿐 아니라, 패션 브랜드 런칭과 관련된 여러 명사 특강과 의상 제작 및 유통에 필수적인 시설과 인프라를 갖춘 무신사 스튜디오 동대문에 입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추구하는 브랜드 방향성에 대해 양하린 학생은 “외면과 내면이 모두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라고 답했다. 평소 그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은 신체의 실루엣(윤곽)이 드러나는 핏한 옷인데, 일반적으로 그런 의상은 불편하기 일쑤라고 한다. 그 단점을 극복하여 ‘핏 하면서 편안한 옷’ 을 지속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여 환경친화적인 내면적 의미도 담아내는 것이 목표이다.

한상명 학생은 탈사회적 운동을 뜻하는 ‘히피’ 에서 유래된 웨스턴히피 스타일의 옷을 추구하고 싶다고 한다. 그는 “사람들이 제가 만든 브랜드의 옷을 입을 때 만큼은 사회에서의 규정과 복장 규범과 같은 것들에서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는 마음을 담아내고 싶다” 라며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에 대해 밝혔다.

두 학생은 모두 목표를 정하고 장학생으로 선정되기까지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의 실무 위주 커리큘럼과 우수한 교수진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양하린 학생은 “막상 현장에 부딪혔을 때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실무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라며 학교에서 수강한 강의의 방향성이 실무 역량 향상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윤경 교수의 도식화 강의에서 실제 공장서 다루는 작업지시서 작성에 대해 익힐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외에도 실무 현장에서 포트폴리오 평가를 담당하던 임동환 교수로부터 사업계획서와 포트폴리오 작성 지도를 받은 것도 장학생 프로그램 지원에 큰 도움이었다고 한다.

이어서, 양하린 학생은 “신유지 교수님의 덕이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모든 수업을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조금이나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 치열하게 고민해 주신 덕분에 저희 학과가 이렇게 실무에 도움이 되는 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 같아서요. 앞서 장학생 선발에 큰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들도 신유지 교수님이 모셔오신 분들이고요.” 라며 패션디자인학과 교수진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두 학생은 신한대학교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것을 꿈꾸고 있다면 개인적인 능력치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라며 소신있는 조언을 해주었다. 한상명 학생은 “학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변별력이 있으려면, 결국 자신의 역량을 높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라며 학점 관리 외에도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높이는 활동을 할 것을 당부했다.

양하린 학생은 “저는 원래 패션디자인학과로 입학한 것이 아니라, 전과를 통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

죠” 라며 자신의 과거를 밝히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모두 불안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불안함을 이겨내는 방법은 걱정만으로 가득찬 생산성 없는 하루가 아닌 밀도 높은 하루들을 열심히 살고 진짜 내가 잘하는 일을 찾아가며 불확실성을 확실함으로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답이 정해지지 않는 꿈에서 오는 불안함 투성이었지만,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진정한 ‘나’ 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불안함에 좌절하지 말고, 자신을 위한 어떤 활동이든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며 말을 마쳤다.

두 학생은 졸업을 앞둔 4학년에 취업이라는 대다수가 걷는 길을 거부하고, 창업을 택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의 졸업작품전을 준비하면서 꿈을 구체화했고 교수진의 수업이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 밑거름이 되어 무신사 패션 장학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 졸업 이후로도 이들은 학교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길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양하린 학생과 한상명 학생이 가져올 패션 업계의 바람이 어떻게 뻗어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Fashion Design Issue – ②

# ‘2023 K패션 오디션’ 김도윤 학생 동상(한국패션산업협회장상) 수상

41회차, 전통성 있는 국내 유망 패션 디자이너 콘테스트 ‘듀페이스’ 외면과 내면의 조화의 아름다움

〈최지원 & 강슬비 기자〉

## 김도윤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18학번

지난 9월,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패션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2023 K패션 오디션’에서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18학번 김도윤 학생이 비기너 부문에서 동상(한국패션산업협회장상) 수상을 이뤄냈다.

‘K패션 오디션’은 7년차 이하의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가 구성되어 있는 챌린저 그룹, 패션에 관심이 있는 학생 또는 예비 패션창업자로 구성된 비기너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룹별 최종 수상은 4일간 온라인 대중투표와 이후 전문 심사위원들의 여러 심사과정을 거친 후 선발되었다.

### Q1.

신한특목 독자에게 자기소개와 K패션 오디션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Q2.

작품을 기획한 컨셉과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 Q3.

학과 커리큘럼이나 비교과 활동 중에서 개인 역량 발전에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있나요?

### Q4.

마지막으로 패션디자인학과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A1.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김도윤입니다. K패션 오디션은 올해로 41회차를 맞은 전통성이 있는 국내 유망 패션 디자이너 콘테스트입니다. 원래 명칭은 한국 패션 대전이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A2.

졸업작품을 진행하면서 만들었던 옷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작품은 ‘듀페이스’ 라는 브랜드를 가상으로 런칭해 기획한 것입니다. ‘듀페이스’ 의 의미는 두 가지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외면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해서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도 소중하며, 외면과 내면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아름다움이 있다.’ 를 옷으로 전개하여 표현했습니다.

### A3.

비교과 활동은 따로 한 게 없습니다. 학과에서 전년도 졸업작품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번년도 졸업작품은 팀별로 브랜드 런칭을 하게 되어서 그 부분이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를 지도해주시는 한왕모 교수님께서 너무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브랜드 색깔을 잃지 않는 디자인이 나오도록 컨퍼를 잘해주시고, 소비자 측면에서 말씀해 주셔서 좋았던 거 같습니다.

### A4.

이런 공모전 같은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참여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첫 공모전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가 온 좋게 수상하게 된 거니까요. 패션 쪽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심사를 통해 내 옷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에게도 뜻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학과에서 졸업작품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옷을 만들게 되니까 이를 통해 다양한 공모전에 나가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에서는 디자인, 소재 선정, 봉제, 스타일링, 모델 피팅 등의 과정을 거쳐 교육하며, 졸업작품을 준비한다. 그 작품에는 교수님들의 열띤 지도와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담겨있고, 배움의 마지막에서는 빛나는 졸업패션쇼를 진행하며 학교 생활을 장식하게 된다. 학과에서 본인이 디자인한 의상을 제작하는 것은 패션디자이너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잊지 못할 경험이며, 더 나아가 김도윤 학생처럼 신한대학교에 좋은 결과를 안고 오게 될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의 도전이 기대된다.



#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2023 치위생 선서식 & 배지 수여식 개최'

'학교'를 벗어나 '현장'으로, 예비 치과위생사로서 내딛는 첫걸음.

<김민성 기자>



신한대학교의 교육 이념 중 하나는 '현장 중심의 인재 육성'이다. 현장이 필요로 하는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습'이다. 이에 신한대학교는 다양한 실습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많은 현장 실무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질 높은 실습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신한대학교 뽕엘관 세미나실에서 치위생학과 치위생 선서식과 배지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이는 치위생학과 2학년 과정을 마치고 동계 임상 실습에 나가기 전, '예비 치과위생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행사이다. 학교를 벗어나 실제 현장으로 나가 환자들을 대하는 만큼,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다.

이날 선서식에는 그 주인공인 학생들과, 치위생학과 윤미숙 학과장을 비롯한 전임 교수진(이경희, 정성균, 김수경, 조한아 교수)이 참석하여 더 넓은 현장으로 나아가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행사는 크게 학과장 축사, 배지 수여식, 촛불 점화식, 치과위생사 선서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치위생학과 전임교수진은 각 지도학생들의 실습복에 직접 배지를 달아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촛불 점화식에서는 학생들의 손에서 손으로, 순수한 의지를 의미하는 촛불이 옮겨가며 참여자들의 의지를 다잡았다.

불안한 듯 흔들리지만, 고고하게 타오르는 촛불은 마치 그것을 옮겨온 학생들의 각오가 투영된 듯 보였다. 모든 학생들의 손으로 촛불이 전달되고 선서가 진행됐고, 그때의 모습만큼은 학생답지 않은 비장함 또한 사뭇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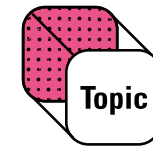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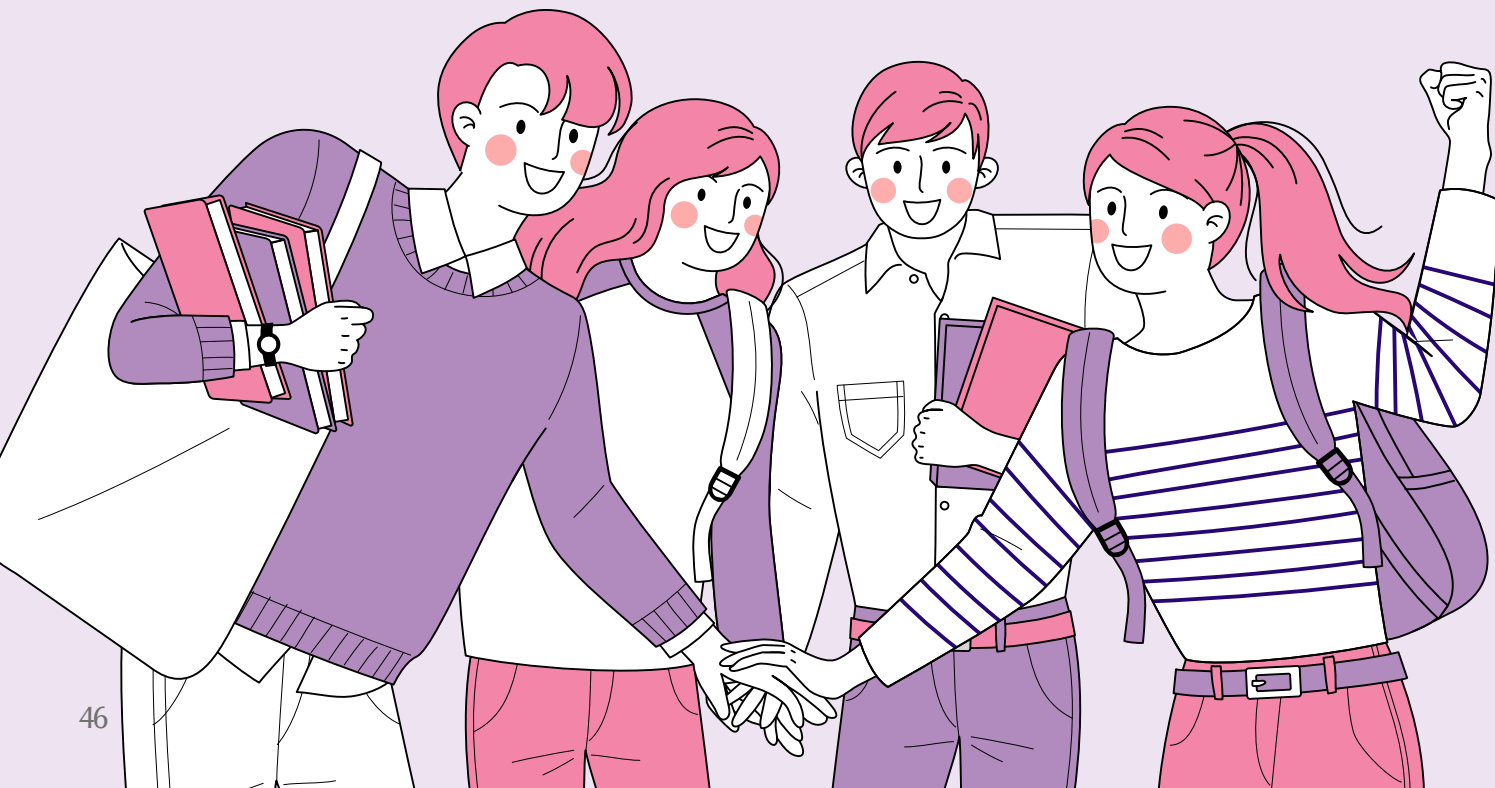
올해 진행된 선서식이 유독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코로나 종식된 후 3년 만에 진행된 행사이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만큼, 기존의 대상 학년인 2학년 뿐 아니라 3,4학년 학생들까지도 마음을 다잡는 의미로 진행됐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치위생학과 윤미숙 학과장은 "여기 있는 학생분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갈 신한대학교의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오늘 치과위생사 배지를 받으며 느낀 무게와 마음을 언제나 소중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수진 모두는 학생들이 언제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번 2023년 치과위생사 선서식은 학생들에게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치과위생사로서의 길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뜻깊은 시간을 제공하였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전보다 다양한 현장 실습과 교육 제도가 다시금 부활하고 있다. 앞으로 신한대학교 의료 보건인들이 이끌어 갈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 ‘기자들의 대담’

## ‘P/F’ 평가방식에 대해 묻다.



신입생 시절, 강의 목록 중 ‘P/NP’ 라 쓰여 있는 것의 의미가 궁금한 적이 있었다. 이후, 그것이 성적 평가 방법중 ‘Pass’ 와 ‘Non-Pass’ 의 줄임말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일정 이상의 성적이면 말 그대로 성적이 Pass, 그 이하면 Fail이라는 것이다. 절대평가나 상대평가에 비해 P/F (이하 ‘패논패’)제도가 갖는 매력은 있을까? 혹은 그 제도적 단점이나 보완점은 없을까? 신문사 기자들은 다양한 방향으로의 대답을 나누어 보았다.

◆ **신혜미 기자** — 우선, 논제를 추천한 이유부터 개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현행 패논패 제도는 분명 학업 부담을 감소해주는 효과도 있고, 지나친 경쟁에서 탈피하여 복합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패논패 강의를 수강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패스, 열심히 하지 않아도 패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전반적으로 학업 나태 경향이 증가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패논패를 현안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을지, 다른 대안은 없을지에 대해 논해보고 싶었습니다.

◆ **이민주 기자** — 우선, 패논패 제도의 도입 시초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패논패 제도는 1970년대 초반부터 일부 대학교의 수업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해요. 학생들에게 더 큰 자유와 실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성적으로 나열되는 경쟁보다는 새로운 분야를 탐구할 수 있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한다면, 현재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나 사각지대를 감수하더라도 패논패라는 성적 산출 방식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지 수습기자** — 저도 일단은 패논패 제도 존치에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대학은 주로 전공 과목을 공부하려고 진학한 건데, 필수적으로 채워야하는 교양 학점이 있어서 듣기 싫은 강의라도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전공에 비해 교양 과목이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령, 제가 지금 수강하고 있는 한 교양 수업은 수업과 비슷한 전공의 고학번 학생들이 많아서 성적 경쟁이 치열해요. 불공정하다고도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이 성적에 고려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강 인원의 학번 구성 차이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기도 하고, 특히나 신입생들이 고학번과 교양에서 경쟁이 붙을 경우에는 벽을 느끼기 때문에 교양한정 패논패는 찬성. 하지만 전공은 지금처럼 성적 유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강슬비 기자** — 경험에 비춰서 말하자면... 패논패 과목이 성적부담이 적어서 타 과목에 비해 신경을 덜 쓰는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민주 기자의 말처럼 제도 자체의 의미를 생각하면 패논패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선택적 패논패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선택적 패논패는 팬데믹 시기에 대두된 방식인데, 기존 패논패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P/F가 아닌 성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도 남겨둬으로써 성적에 대한 동기부여를 준다는 거죠. 이러면 학생 입장에서든 열심히 공부할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 태도 나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민성 기자** — 제가 선택적 패논패 제도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서 그런데, 혹시 자세히 알려 주실 수 있나요?

▶ **이민주 기자** — 코로나가 한창이던 비대면 시기에 ‘양질의 콘텐츠를 갖추지 못한 강의에 학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는 주장에서 대두된 제도예요. 예시를 들자면, C나 D 성적을 받았던 학생들이 해당 과목 성적을 Pass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 **김민성 기자** — 근데, 그러면 대학에서 증명해주는 성적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 **강슬비 기자** — 실제로 선택적 패논패 제도에 대해서 ‘학점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선택적 패논패에 반대하는 주요한 주장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제도이다’ 라는 거였어요.

▶ **조수빈 기자** — 음, 저희 대답 중에 선택적 패논패가 이슈로 나오게 된 게, 전공 과목보다는 교양 과목을 대상으로 대담을 진행하다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선택적 패논패의 학점 인플레이션과 순기능 등 논란이 됐던 것은 전공, 교양 구분없이 전 과목에 선택적 패논패를 도입하는 의견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해요. 만약 도입한다면 현재 패논패로 하고 있는 과목에 한하여 선택적 패논패 방식을 취하고, 나머지 전공 과목과 일반적인 성적 산출 방식인 교양 과목은 현안을 유지하면 문제없지 않을까요?

▶ **김유진 기자** — 일단, 현재 신한대학교에서 패논패 방식을 채택하는 강의는 대부분 외국어나 기독교의 이해와 같은 필수 교양과목이잖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학생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강의에 대해서 성적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런 강의 성적이 후일 발목을 잡는다면 역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패논패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패논패 과목의 학업 나태 경향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며, 열심히 한 학생들이 역울해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60점만 맞으면 되는 과목이라고 하면, 그만큼의 노력만 본인이 투자하고 나머지 과목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면 되니까요. 제도의 특징을 잘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선택적 패논패가 대두된 배경에는 팬데믹 시기의 원격 시험이 가진 문제점(족보, 컨닝 등)의 원인도 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팬데믹이 종료된 현시점에서는 굳이 기존 패논패를 선택적 패논패 제도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혜미 기자** — 유진 기자 말처럼 현시점의 대학 환경이 선택적 패논패가 처음 대두되었을 때와는 다른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선택적 패논패를 단순히 학업부담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지금처럼 특정 과목에 일괄 패논패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패논패를 도입하여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강인원 부족이나 각종 변수 등으로 인해 낮은 학점을 받았을 때 만회하는 차원에서 패논패를 대안으로 적용하는거죠. 최대한 패논패를 적용할 수 있는 과목의 한도를 정해두고, 적게 사용할수록 다음 학기에 쓸 수 있는 개수를 늘려주거나 등의 방식으로요. 결과적으로 성적부담감은 감소하고, 학업에 충실한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최지원 기자** — 저도 패논패 과목의 학업 나태라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유진 기자와 비슷한 의견입니다. 사실 대학에 오는 이유는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고 싶어서인데, 듣기 싫은 교양(필수)과목에 과하게 노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적절한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핵심 역량을 위한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익히다 보면 결국 길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실기가 많은 전공 학생들은 교양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패논패 제도가 현안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구현지 기자** — 저도 패논패 제도는 어떤 형식으로든 유지하는게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대개 상대평가라는 환경에서 경쟁하고 있잖아요. 이 치열한 경쟁에서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성적 제도가 패논패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경쟁 위주로만 성적 산출이 구성되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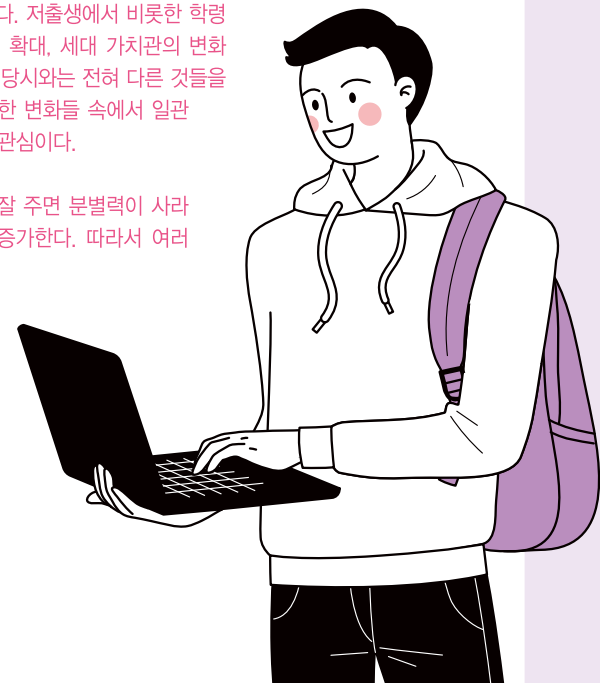
사건을 쟁자면, 현재 신한대학교에서 패논패로 진행되는 과목들 중, ‘외국어’와 관련된 과목은 성적을 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와 관련한 공부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요. 그 외에 교양과목은 패논패를 확대하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헤미 기자의 의견대로 어느 정도의 제한은 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민성 기자** — 불과 몇 년 전에는 대다수의 필수 교양 과목이 패논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택권이 없는 강의에 대해서는 패논패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 ‘교양’ 과목에 A B C 성적을 내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학과마다 다르겠지만, 취업 시 기업에서 보는 성적은 대부분 직무 적합성과 연관된 전공 성적 위주잖아요? 말 장난을 쳐보자면, ‘교양’을 쌓기 위해 수강하는 것이 ‘교양’인데, 나의 교양 수준을 평가받고, 그 점수가 꼬리표처럼 붙는건 우월한 현실인 것 같아요.

최근 대학 교육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저출생에서 비롯한 학령 인구의 감소,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환경의 확대, 세대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적 환경변화 등 기존 대학들이 설립될 당시와는 전혀 다른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일관된 사실은 대학 관련자들의 ‘성적’에 관한 관심이다.

성적 산출은 민감한 문제이다. 너무 점수를 잘 주면 분별력이 사라지고, 너무 야박하게 주면 낙오되는 이들이 증가한다. 따라서 여러 환경에 맞춰 절대평가, 상대평가, 패논패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기자들은 그중 ‘패논패’ 과목에 대해 ‘성적’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로서 대담을 진행해보았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 더 나아가, 우리가 평가받는 방법에 대해 평가해보는 시간이 되어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회

〈중 근세관〉, 〈서화관〉, 〈조각 공예관〉 등 7관, 39실로 구성되어 9,884점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서원빈 수습기자〉



인문학은 우리의 삶을 더 깊게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문학, 예술, 역사 등을 통해 얻는 지식은 우리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주며,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중 인문학의 꽃이라 불리는 ‘역사’는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며 성찰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과거를 탐구하기 좋은 곳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설 전시회는 고대부터 근대 조선 후기까지, 총 7개의 관과 39개의 실로 구성되어 9,884점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은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와 머물다 갈 수 있는 휴식의 장소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급격하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박물관의 역할은 잠시 쉬어가는 곳이자 뒤를 돌아봐도 되는 곳이기도 하다. 선사/고대, 중/근세로 이루어진 1층 내부는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섬세하게 느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선사/고대관의 경우, 인류가 한반도에 살기 시작한 구석기시대부터 통일신라와 발해가 공존한 남북국시대까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시간의 흐름대로 보여주는 전시 공간이다. 고대관 중 가장 인기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 ‘사신도’는 현실의 세계와 사후세계를 이어주는 공간이다. 고분의 주인들은 죽은 뒤에도 살아 있을 권력과 영광을 누리길 원한다. 이는 두 세계를 연결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고분벽화를 통해 그 방법을 찾았다. 고구려 실을 경험하며 우린 고구려인들이 전한 삶과 죽음이라는 메시지, 그 뒤 펼쳐지는 이상 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중/근세관의 경우 고려(918~1392), 조선(1392~1897), 대한제국(1897~1910)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경험할 수 있다. 허준의 동의보감, 광해군일기, 암행어사 보고서와 마패는 교과서로만 접하던 유물들을 시각적으로 봄으로써, 관람자들은 인문학적 지식을 한 층 쌓는 계기가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부터 다양한 역사가 존재해 왔고 수많은 문화가 꽃피우고 지길 반복했다는 것을 알아가는 공간이다. 우리가 과거를 엿보는 것처럼, 현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도 미래의 후손들에게 하나의 ‘역사 자료’로 이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회를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박물관은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와 머물다 갈 수 있는 휴식의 장소입니다.”

# 신이 없는 신화를 들어본 적 있는가?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정현지 수습 기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 본 적 있는가? 그리스 로마 신화는 고대 그리스에서 발생해 18세기까지 이어진 신화다. 직접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어릴 적 신화 내용에 대해 한 번쯤 접해본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소재들은 오늘날 창작 작품에서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예시로, 화제의 드라마 ‘더 글로리’의 박연진과 하도영 대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열지 말아야 할 상자는 열지 말라고. 상자 안에 든 것들 세상 밖으로 못 나오게 할 거야” 여기서 의미하는 상자는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다.

신화 원문에서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인간들에게 벌을 주고자 상자 속에 욕심, 시기, 원한, 질투, 복수, 슬픔, 미움 등의 재앙을 담아 ‘판도라’라는 여자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어리석은 판도라는 상자를 열게 되었고, 상자 속에 담겨있던 재앙들은 세상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는 현대의 작품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독 그리스 로마 신화가 현재까지 잘 전해 내려오는 이유는 다른 신화들보다 사람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상황들을 반복하는 것에 있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과 ‘영웅’들은 그 본래 의미와는 거리가 먼 ‘인간’의 본성과 가치, 욕망, 용기, 사랑, 배신의 주제를 다룬다. 다른 신화에 비해 ‘절대적인 신’ 의미보단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이 사람들의 공감과 재미를 얻을 수 있던 원동력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올림포스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신화 속 신들의 의미는 당대 살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꿈과 진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신들에 대한 경건함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대한 경건함,

그 시대 도덕률에 대한 경건함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저 허구의 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엮은 이윤기 저자는 이러한 말을 전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올림포스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신화 속 신들의 의미는 당대 살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꿈과 진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신들에 대한 경건함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대한 경건함, 그 시대 도덕률에 대한 경건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신이라는 가치의 존재 유무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 속에서 ‘신’이란 그저 동경과 환상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과거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 신화 속 남성성의 상징인 헤라클레스를 따라하며 본인과 동일시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마치 유행처럼 사람들은 동물 가죽을 어깨에 메고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그 사람을 동경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헤라클레스의 잔’이라는 커다란 술잔을 들고 다니며 튀로스를 점령한 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다는 기록도 있다.

마치 현대에 우리가 동경하는 인물을 따라하듯, 기원전 과거에도 동경하는 인물들을 닮고 싶어 하는 것은 변함없다. 이제는 신의 유무를 따지기보다는, 기원전부터 내려오지만 과거 인간들의 고뇌와 삶이 현대와 별반 차이 없다는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야한다. 우리가 영원하고 동경하는 것처럼 그 시대의 영원 및 시대상을 흥미롭게 오랫동안 접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듣고 싶은 답을 찾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변화, 영화 ‘그린북’

실화를 바탕으로 한 명작 영화 ‘그린 북 (Green Book, 2018)’

\*그린 북 (Green Book): 1960년대 흑인 여행자들을 위해

흑인이 숙박 가능한 업소, 식당 등을 여행지마다 소개해놓은 책

〈김유진 기자〉

“폭력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품위를 유지할 때만 이길 수 있는겁니다.”

‘그린북’은 1962년 뉴욕 거리에서 시작한다. 세상을 거칠게 살아가는 주인공 토니는 천재 피아니스트 쉐리의 운전기사로 취업하게 된다. 영화는 쉐리의 피아노 콘서트 투어 중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다룸여 전개된다. 미국 남부에 도착해 함께 시간을 보내는 토니와 쉐리는 인종, 취향, 말투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달랐지만, 서로를 마주하며 조금씩 이해하고 마음을 열 어간다. 평화로움도 잠시, 쉐리는 인종의 이유로 부당한 폭력의 피해를 받게 되고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의 말투, 편견 가득한 행동들로부터 상처받고 좌절한다. 그러나 쉐리는 상처의 아픔을 이겨내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용기 내 어 끝까지 피아노를 연주한다. 쉐리는 토니, 그의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영화는 끝이 난다.

영화 ‘그린북’은 2019년 미국 아카데미상 작품상 등의 여러 상을 수상하며 인정받았다. 이 영화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차별과 편견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운을 남긴다. 세계는 넓고 그 속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산다. 인종차별은 1800년대 노예제도 당시 백인들이 흑인들을 ‘짐승보다 못한 야만인’으로 여기며 자신들의 소유물로 생각한 것이 시작점이다. 노예제도는 결국 폐지되었고 마틴 루터킹 목사와 같은 흑백평등을 주장하는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시민들의 의식 개혁이 차츰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인종차별은 흑인과 백인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 ‘그린북’ 영화의 배경이 되는 미국만의 이야기인 것일까? 아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한때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다. 바로 ‘윤식당 인종차별’ 사건이다.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하여 요리를 개발하고 외국에 식당을 차리는 유명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 2018년 윤식당의 배경은 스페인이었다. 식당을 찾아온 독일 남성은 한국 연예인을 향해 “동성애자” 등의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독일인의 “여기 동성애자 남성이 있네” 발언을 “여기 잘생긴 한국 남자가 있네”로 오역하여 자막을 내보냈고, 우리나라 시청자들은 분노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을 겪고 있는 피해자인 것일까? 우리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인종의 다름을 이유로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인종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다. 1991년 LA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인 여성이 15세의 흑인 소녀를 호신용 권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흑인민권단체에서는 “한인 상인들은 흑인 고객들을 존중하지 않으며 항상 흑인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니가(Nigga), 힌둥이란 표현을 들 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흑인들 또는 백인들을 모욕하고 무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들이다. 미국인들도 한국인들도, 동양인들도 서양인들도, 자신들을 향한 인종차별에만 분노하고 정작 다른 인종들을 향한 차별에는 늘 뒷전이다. 인종차별은 누군가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영화 속 쉐리는 주변 사람들의 편견 가득한 말들과 행동, 당연한 차별의 모습에 절망한다. 쉐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잘못에 대한 인지조차 없다. 이것은 영화 속 과거가 아닌 현재까지의 이야기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종차별을 겪었거나 또는 겪게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인종의 타인을 보고 신기하단 듯 친구와 웃고 떠드는 것들 말이다. 청년세대의 부정적인 담론의 모습 중 하나인 편 가르기도 인종차별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실 속에서 특정 성별, 나이, 인종의 다름으로 인한 부당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마주하고 모두가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이들은 두 집단으로 나뉘어 피해자가 누구인지, 누가 더 불평등한지만을 놓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담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무차별적인 비난에 가깝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제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를 향한 혐오의 감정만 커지게 된다. 우리는 인종의 초점을 차별이 아닌 차이에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다른 인종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살색 아닌 살구색’처럼 문제를 인식하고 바뀌나가려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그들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우리도 그들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 햇빛과도 같은 영원한 기억들, '이터널 선샤인'

사랑은 그렇게 다시 기억된다.

〈조수빈 기자〉



“추억이 곧 사라지게 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음미하자”

지우고 싶은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영화 <이터널 선샤인>은 주인공 조엘이 연인이었던 클레멘타인과의 아픈 기억을 지워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영화의 시작을 알린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조엘은 기억을 지우려 했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잊혀 가는 기억들을 자꾸만 붙잡으려 한다.

2005년 한국에서 개봉한 <이터널 선샤인>은 2015년 11월 재개봉하며, 그 인기가 상당히 흥행 역주행의 역사를 썼다고 불리는 영화 중 하나이다. 장르를 명확히 멜로/로맨스이지만, 아픈 기억을 지워준다는 ‘선택적 기억 삭제’라는 독특한 요소가 배경이 된다.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억을 지키려는 조엘의 다양한 노력과 그에 맞는 영상이 작품의 몰입도를 높여주는데 한 몫을 차지한다. 또한, 클레멘타인의 머리 색으로 작품 상황이나 인물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관람 포인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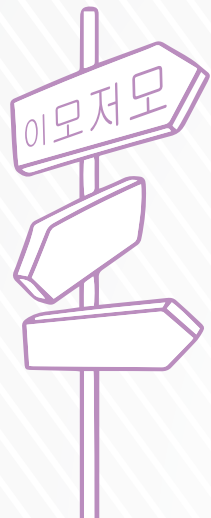
“추억이 곧 사라지게 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음미하자”

사라져 가는 기억들을 돌려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조엘과 클레멘타인이 나누는 대화이다.

영화에서 기억은 최근 것부터 과거 기억 순으로 삭제되어 간다. 다두고 헛튼던 관계였던 최근의 기억을 지울 때와는 다르게, 점점 과거의 기억으로 갈수록 행복했던 기억에 조엘의 무의식은 반응한다.

타인과의 기억은 무수히 얽혀 있다. 아픈 기억을 잊기 위해 행복했던 기억까지 기꺼이 지워낼 수 있을까. 사실 <이터널 선샤인>의 첫 장면은 조엘과 클레멘타인의 첫 만남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기억을 지운 뒤에 다시 만난 장면이다. 기억을 지웠음에도 같은 사람과 또다시 사랑에 빠진다는 아이러니함이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한다. 애초에 감정을 공유한 누군가를 지워낸다는 자체가 어리석었던 것은 아닐까.

누군가의 삶 일부분인 기억은, 그 사람의 삶을 설명해주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기억을 통해 상대에게 나를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 속에서 감정이 오가며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는 반드시 아픈 기억과 행복했던 기억들이 공존한다. 이쯤 돼서 처음의 질문을 다시 꺼내보자면, 기억을 지워낸다 한들 우리는 끝끝내 다시 감정의 짝을 찾아내지 않을까. 조엘과 클레멘타인처럼 말이다.



### 신한대 로타랙트 동아리, 한국로타리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과 지도교수상 2관왕

2023년 12월 15일 서울 중구에서 한국로타리청소년자원봉사대회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한국로타리청소년자원봉사대회는 국제 로타리에 소속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22년 3월부터 23년 7월까지 각 클럽의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주는 대회이다. 신한대 로타랙트클럽(회장 장다운)은 자원봉사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장관상을 받았다. 더불어 우수 지도사 상을 수상한 이금숙 교수도 2관왕이란 쾌거를 얻었다.

〈서원빈 수습기자〉



### 신한대, 2023년 '유학생의 밤' 행사 성황리 개최 외국인 유학생의 요리, 장기자랑 등 매력 발산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는 12월 22일 에비에셀관 컨벤션홀에서 '2023년 유학생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신한대 외국인 유학생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학생 간 교류 기회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모든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하여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학생의 밤 행사는 국가별 음식 품평회 및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축하 공연(축가, 스포츠 댄스),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신한대학교 정진경 부총장은 환영사에서 "신한대학교는 선진적인 유학생 지원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우수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지 수습기자〉



### 신한대학교와 (주)이지스, 디지털 트윈 시대 공간정보 인력양성 위해 맞손! 한국형 공간정보 실무과정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신한대학교(강성종 총장)는 2023년 9월 5일 디지털 트윈 선도기업 (주)이지스(김성호 대표)와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마이크로디그리 대학 한국형 공간정보 실무과정에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플랫폼 SW와 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공간정보 실무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토지행정학과는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기술 기반의 토지행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스마트 기술의 이해 및 수행능력", "공간정보 이해 및 융복합 활용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각종 재난재해로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과학적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재난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구현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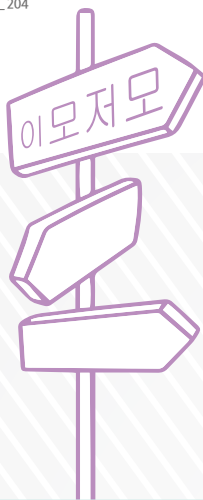


### 신한대학교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신한대학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포럼'을 댄포스코리아, (사)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대자연 의정부시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신한대학교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길을 개척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희미 기자〉





### 신한대학교 'SW중심대학 공동 해커톤2023' 수상 우수상, 후원기업상 수상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가 SW중심대학 공동 해커톤2023에서 우수상(산업디자인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과 후원기업상)을 수상하며 대학의 위상을 높였다. 강성중 총장은 "성공적인 SW중심대학사업을 위하여 K-STAR 융합 교육을 통한 SW교육 가치 실현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정하였고, SW융합교육을 전면 추진하여 THE TECH-ONE 융합 인재 양성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최지원 기자〉



### 신한대학교 직장민방위대,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신한대학교 직장민방위대는 '23년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두어 빈틈없는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또한, 매년 2회 의정부소방서와 연계하여 대학 내 건물에서 합동소방훈련 실시 등 여러 훈련을 통해 민방위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며 지속적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혜미 기자〉



###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제1회 스타아트연극제' 대상 수상 연극 '쌈타임즈' 단체부문 대상 등, 최우수연기상, 우수연기상 수상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학과장 최교익)가 차세대 젊은 예술가 발굴을 위해 열린 제1회 스타아트연극제에 참가해 훌륭한 성과를 냈다.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는 연극 '쌈타임즈'(최교익 작)로 단체부문 대상을 차지했으며 독백경연대회 최우수연기상, 우수연기상과 작품부문 남여 우수연기상을 수상하며 신한대학교의 위상과 연극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드높였다. 윤광희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스타아트연극제와 같이 현장 중심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길 바라며, 연극제에 참여한 모든 학생이 공연예술현장에 살아 숨 쉬는 예술인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구현지 기자〉



### 신한대학교 국제어학과 학생들, 생성형 AI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인문학의 지평을 넓히다.

2023년 6월 15일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 국제어학과는 (사)국제통역번역협회와 협력하여 생성형 AI 프롬프트 내용 생성과 검증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제어학과 다수의 학생들에게 인정서와 장학금을 수여 하였다. 신한대학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산학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어학과 학생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역을 담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 신한대학교, 아프리카 세네갈 자동차정비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2023년 KOICA 글로벌 초청연수사업 실시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23년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SEP)자동차 정비 및 역량강화 초청연수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대 세네갈 무상협력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개 연도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자는 SEP 관리자 및 자동차 공과 실무자, 교사 등으로서 청년 고용 및 소득 향상, 직업 교육 시스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원빈 수습기자〉



###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2023년 제51회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100% 합격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 보건대학 치위생학과 4학년 학생 46명 전원이 제51회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실기 및 필기)에 100% 합격했다. 치위생학과 윤마숙 학과장은 "100% 전원합격의 비결은 열정적인 치위생학과 교수진의 노력과 더불어 현장실무 역량에 특화된 체계적인 전공교육과정 운영, 지속적인 모의고사 실시, 국가고시 특강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이 100% 합격의 동력이 되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정현지 수습기자〉



# 편집후기

## 강슬비 기자

이번에 발간되는 신한톡톡이 나에게 마지막 이 되었다. 나의 학교 생활에서 약 3년이라는 시간을 이곳 신문사와 함께 했는데 배우는 것도 많았고 느끼는 것도 많은 시간들이었다. 한편의 신한톡톡이 발간되기 위해 전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나에게 큰 밑거름이 되었다. 함께 부담하고 도와주면서 만들었던 부원들도 빼놓을 수 없는 고맙고 멋진 사 람들이다. 특히 편집장을 맡으신 김민성 편집 장님이 너무 많이 기사나 업무를 맡아 주시고 부원들을 도와주셔서 이번 신한톡톡의 진정 한 영웅이 아닐까 싶다.

마지막 신한톡톡까지 참여할 수 있어서 행복 했고, 즐거웠다. 안녕, 신문부.

## 구현지 기자

1년간 함께한 신문사는 나의 대학 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보람으로 자리 잡았다. 취재부 터 기사 작성까지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물을 마주할 때의 뿌듯함은 신문사 기자라는 역할에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함께하는 선배, 동료 기자들의 존재는 버팀목이 되어주어 고마 움으로 가득한 한 해였다.

## 김유진 기자

졸업을 앞두고 보낸 신문사에서의 시간은 값 지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신한톡톡 발행을 위해 3년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했던 경험은 나를 성장시켜주었다.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 해주고 이끌어준 기자분들과 편집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 이민주 기자

벌써 신문사 기자로서 맞는 두 번째 겨울이다. 속절없이 흐른 시간에 한 학기의 신문사 활동만이 남아있는 지금. 이쯤되니 여태껏 해 온 일들에 후회는 없는지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 같다. 그 후회를 마음에 지니고 마지막 남은 학기도 그 어느때보다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뒤돌아보지 않도록 후회없이 완벽하게 해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다음호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 정현지 수습기자

대학교 입학 이후 3년 동안 글을 써왔지만, 내 이름과 기자라는 직책이 함께 있는 글은 써본 적 없다. 기사를 쓰는 동안에도, 더 좋은 기사를 고민하며 다른 방향으로 여러 번 기사를 써보고 수정도 했다. 기사를 쓰는 동안은 '내가 글을 쓸 때 이렇게 즐거워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회의 때마다 기자분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한 층 탄력을 받았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도움을 주신 교수님과 편집장님, 신문사 기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이번 경험으로 앞으로 더 나은 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 서원빈 수습기자

'신문사'라는 단어 자체에 다가오는 이미지가 멋있어 들어오게 된 신한대학교 신문사.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고 들어왔지만 편집장님을 필두로 체계적인 조직생활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23살, 늦다면 조금은 늦은 나이에 신문사 신입으로 들어왔지만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신문사 임원들을 필두로 앞으로 체계적인 활동을 임할 예정이다.

## 최지원 기자

정기기자로서 활동을 시작하며 지난 호보다 정 신없이 보냈던 것과 동시에 성취감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아직은 기사를 쓰면서 부족한 점이 많다 생각하지만, 기자들과 함께 하며 그런 부분을 채워가고, 점차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활동에 임했다. 그렇기에 편집장님과 기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다음 호에서는 더욱 성장한 기자가 된 내 모습을 마주할 수 있기를.

## 김민성 편집장

2018년, 처음 1학년으로 신문사에 입사해 작업했던 톡톡이 194호 신한톡톡이었다. 어느덧 졸업을 앞두고, 204호 신한톡톡 작업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이번 신한톡톡은 유독 어려움이 많았던 호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앞으로 살아가면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그동안 신한톡톡에 쓰여있는 내 편집후기들을 살펴보았다. 유독 남들보다 길고, 쓸데없이 장황하다는 것이 나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편집후기만은 짧게 마쳐보고자 한다. 하 나의 진심만을 남긴다면, 함께 작업하며 큰 힘이 되어준 모든 기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또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

## 신혜미 기자

203호 기사에 이어, 이번 204호 기사로 '신한 톡톡'에 또 한번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다. 아직 서투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맡겨 주신 것에 부응하고자 한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 더 열심히 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년 동안 학생기자로 활동하면서, 끝없는 도전과 깨달음의 연속으로 값진 경험을 한 것 같아 보람차고 뿌듯하다. 매번 잘 챙겨 주셨던 편집장님과 기자 선배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결과물 완성까지의 우여곡절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 조수빈 기자

204호는 나의 대학 생활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것 같기에 기분이 묘하다. 신문사 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과 다양한 경험을 나눴고, 매번 새로운 기사들을 담았다. 이러한 경험들은 내가 나의 글에 애정을 갖게끔 해주는 소중한 매개가 돼 주었다. 20살의 대학 생활 시작부터 끝까지 신문사와 함께했음에 후련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크게 남는다. 이따금 카메라를 챙겨 취재를 나갔던 날들이 떠오를 것 같다.



# Impossible » I'mpossible

대학은 형식이 아닌 내용이 지배하는 곳이며,  
정답을 의심하며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입니다.  
신념과 의지를 상품으로 만드는 곳이고,  
무엇보다 대학은 위기를 용기로 바꾸는 곳입니다.

그러니 지속가능 캠퍼스에는 미션 임파서블이 없습니다.

젊고 강한대학!  신한대학교

**2024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 전국 2위 · 2023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 전국 3위**

제1캠퍼스: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제2캠퍼스: 경기도 동두천시 별마들로 40번길 30 입학상담: 031)870-3211~7